

신라 효소왕대의 『삼국유사』 기록 검토

- 기이편 죽지랑조를 중심으로 -*

呂 聖 九**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모죽지랑가 |
| 2. 모랑리 탄압설화 | 5. 맺음말 |
| 3. 죽지랑 출생설화 | |

1. 머리말

효소왕(687~702)은 부왕 신문왕의 왕권 강화를 위한 전제개혁을 발판으로하여 왕위에 올랐다. 그의 11년 재위기간동안 왕권강화를 위한 개혁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6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고, 16세인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었던 만큼 강력한 왕권을 견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효소왕은 신라 중대에서 주목되는 치적을 남긴 왕이 아니었고, 왕권강화 추진 정책의 소강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삼국유사』에서는 紀異편의 효소왕대 죽지랑조, 塔像편의 栢栗寺조, 神呪편의 惠通降龍조, 感通편의 眞身受供조 등 왕과 관련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이 전하는 편이다.

* 본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6980).

** 국민대학교 강사

이러한 기록들은 효소왕대의 정치적 동향을 이해하는데 중요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죽지랑의 기사나 혜통항룡조의 내용이 효소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여 이에 대한 정치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 네 개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죽지랑조만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죽지랑조를 연구한 논문들을 대별할 때, 익선 처벌과 화랑, 모죽지랑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자는 역사학에서 주로 취급한 반면, 후자는 국문학에서 다루어왔다. 역사학계의 뜨거운 논쟁은 익선 처벌 시기에 대한 것이다. 크게 진평왕대와 효소왕대로 나뉘어지는데, 진평왕대를 주장하는 측은 죽만랑(죽지랑)의 화랑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효소왕대를 견지하는 측은 일단 『삼국유사』의 기록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거나, 부산성 축조시기를 들기도 한다.

설화가 내포하고 있는 실제적 요소와 허구적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그 전체를 역사적 사실로 연역해 내리는 문헌적 실증적 태도를 비판한 논고¹⁾는 『삼국유사』를 연구할 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럼에도 설화 속의 역사적 사실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²⁾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국문학계와 역사학계의 연구방법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 방법론을 염두해 두고 연구할 필

- 1) 홍기삼, 「孝昭王代 竹旨郎 考」, 『불교학보』 30, 1993, 344~345쪽에서, 죽지설화는 “미련하고 탐욕스러운 관리 하나가 죽지랑같이 국가적 예우를 받아 마땅한 국가 원로에게 잘못 거드름을 떨다가 완전하게 몰락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동원된 고유명사군이나 역사적 사실들은 사실을 위장하는 서술장치에 불과하다. 죽지랑에 대한 익선의 행위와 간진과 진절의 뇌물 공여, 그에 따른 익선 모랑리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史實로 演繹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다”고 하였다.
- 2) 金杜珍, 「三國遺事 所載 說話의 史料의 가치」, 『구비문학연구』 13, 2001 :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 일조각, 2014, 201~203쪽에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많은 설화는 오랫동안 전승되는 과정에서 신이한 신앙을 첨가한 관념적 사료로 바뀌어 역사적 개별 사실과 신이한 전승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기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그것은 생경한 역사적 진실을 전해주면서 아울러 당대 사회의 개별 사실을 더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원측이 모랑리 사람이기 때문에 승직을 받지 못하였고, 아울러 당나라에서 귀국하지 못하였던 것은 역사적 진실이다. 죽지랑 설화는 모랑리 사람들이 관직이나 승직에서 거세되는 등, 당대 사회의 사실적 모습을 알려 준다. 뿐만 아니라 6부의 권력자가 部人들을 징집하는 실태나 그에 따른 뇌물의 공여, 花主의 권한 등에 대한 사실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효소왕대의 여러 기록 중 죽지랑조가 기이편에 수록된 이유를 밝혀보려고 한다. 그를 위해 일연의 편찬 의도와 역사이해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일연이 관련 자료와 구전되어온 설화 등을 수집 정리하여 쓴 것인지? 아니면 근거 자료를 보고 옮겨 적은 것인지의 여부도 고민해 볼 것이다. 아울러 일연이 원자료를 비판하거나 수용한 측면 또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 죽지랑조의 새로운 해석과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일연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 각 항목의 내용에는 일연이 수집한 자료를 전재한 경우도 있고, 자료를 축약 정리한 것도 있으며, 일연 자신이 쓴 것도 있다. 따라서 일연이 참고한 자료의 분석이 요구되며, 수록된 기록들을 크게 自述과 轉載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은 참고한 자료의 작성자, 작성 시기 등 자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요긴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술이란 一然 자신의 상식이나, 지식을 기술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일연이 자료 전체 혹은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轉載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요약 정리한 것과 구별해 보아야 하나 아직 거기에까지 역량이 미치지 못하여 인용과 요약 정리한 것 모두를 전재라고 하였다. 자술 부분과 전재된 내용 속의 細註를 통해 일연의 생각과 의도를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설화의 시공간을 추정케 하는 표현들을 통해 관련 자료의 제작시기와 작성자를 추적해 보고자한다. 그러나 추론의 정리 작업에서 역측과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많은 질정을 바란다.

2. 모량리 탄압설화

『삼국유사』의 기이편은 왕의 世家 혹은 本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³⁾ 一然是 효소왕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죽지랑의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죽지랑조는 내용면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선학들의 구분 또한 거의 일치한다. 첫째, 죽지랑과 낭도 得鳥의 관계, 益宣의 탐욕과 牟梁里인에 대한 처벌 이야기가 있으며, 둘째, 화랑 죽지랑의 출생담, 마지막으로 득오의 모죽지랑가를 들 수 있다. 첫째에서 둘째 이야기로 넘어갈 때, 그리고 둘째에서 셋째 이야기로 넘어갈 때 각각 ‘初’로 시작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일연이 단락을 나눌 때 썼던 표현인 듯하다.⁴⁾

이들 세 이야기 모두 효소왕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일연은 항목명을 ‘효소왕대 죽지랑’이라고 하였는데, 일연은 죽지랑조에 수록된 자료들이 시기상으로 혼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一然은 첫째 이야기가 효소왕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했던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죽지랑조 전체를 볼 때, 내용의 전개 과정은 먼저 죽지랑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이후 화랑으로서의 활동, 득오의 모죽지랑가의 찬술 등으로 서술되어야 시간상 맞는 것인데, 一然은 이들 순서를 바꾸어 편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연이 시간의 선후를 바꾸어 편집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삼국유사』의 편목인 기이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⁵⁾ 죽지

3) 기이편에 대해 ‘神異한 기록’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와 아울러 왕의 세가(본기) 중 불교 관련 기록을 찾아 수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이편 중 불교 수용 이전에는 불교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수용 이후의 항목은 거의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기이편에는 왕이 아닌 김유신 등 위인을 항목명을 선정하기도 했으나, 만과식적은 신문왕대의 기록이며, 수로부인은 성덕왕대의 기록이고, 처용랑 망해사는 현강왕대의 기록으로서 항목명에 왕명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왕의 세가(본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일연은 ‘익선 사건’과 ‘죽지랑 탄생담’을 연결점으로 ‘初’라는 연결 부사어를 제시함으로써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려 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시간 구성을 ‘初’라는 말로써 표시한 것이다 (김태식, 『『三國遺事』 竹旨郎條 탈구축을 통한 新羅 花郎과 그 花主』, 『忠北史學』 21, 2008, 49쪽).

5) 김태식은 위의 논문에서 기록의 선후에 대한 의문에서 죽만랑과 죽지랑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고 있다. 또한 이 설화의 특징으로서 과거의 이야기인 죽지의 출생담이 敍事의 후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논고도 있다(洪起三, 앞의 논문, 325쪽). 박노준은 일연이 시간상의 선후를 전혀 무시하고 질서 없이 편집, 구성해 놓은 기록문이라고 하였다(『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90, 120쪽 ; 홍기삼, 앞의 논문, 325쪽 재인용). 이도흠은 ‘初’라는 부사어는 시간상의 피리를 표시하는 동시에 무마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기이 편목의 구조, 『삼국유사』의 구조와 대비시켜 보아야 한다는 입론을 세우고, 죽지랑의 탄생이 효소왕대보다도 앞서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뒤에 부연되어 있다고 하였다(『모죽지랑가의 創作背景과 受容意味』, 『한국시가연구』 3, 한국시가학회, 1998, 135쪽).

랑의 출생담은 효소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배열상 뒤에 넣었고, 효소왕과 관련이 있는 첫 번째 이야기를 맨 앞서 넣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⁶⁾ 죽지랑조를 기이편에 넣기 위한 일연의 편찬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아마도 일연이 첫째 내용을 효소왕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식했으며, 그 결과 이 이야기를 기이편에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세 가지 기록이 별개의 자료에 근거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만약에 이들 세 가지 내용이 모두 하나의 문건을 참고한 것이라면 굳이 내용을 분리해 편집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의 문건을 참조해 편집했다면 일연은 죽지랑조를 기이편이 아닌 다른 편목에 수록했을 것이다.⁷⁾ 과연 일연이 생각했던 것처럼 모량리 탄압 사건이 효소왕대에 발생하였는지 살피기 위해 세 이야기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죽지랑조의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한 자료 분석과 내용 검토를 정리해 우선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각 내용에 대한 분석은 아래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표 1> 죽지랑조 체제 분석

구분	내용	주제어		인물	전거
		시간정보	공간정보		
(1)모량리 탄압설화	① 第三十二孝昭王代~ 標異之	推火郡, 能節租, 仲冬	富山城, 牟梁里	竹曼郎, 得烏失	轉載
	② 時園測法師~不授僧職	圓測	-		自述
(2)죽지랑 출생설화	① 初述宗公~因名竹旨	述宗, 都督使, 三韓兵亂	朔州, 竹旨嶺	述宗, 竹旨	轉載

6) 죽지랑조의 이야기 전개 구조는 일연에 의해 치밀히 구성된 것으로, 重土風味하는 높은 화랑정신을 흥미한 고려말기를 극복하는 정신적 지표로 내세우고자 했다는 논고가 참고된다(이연숙, 「모죽지랑가고」, 『한국문학논총』 13, 한국문학회, 1992, 17~22쪽).

7) 죽지랑의 출생담을 서술한 다음 모량리의 탄압과 원측 기사, 그리고 모죽지랑가의 시간순으로 편집했다면, 미륵불과 연관한 죽지랑의 출생을 강조해서 감통편에 수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구분	내용	주제어		인물	전거
		시간정보	공간정보		
	② 壯而出仕~安定厥邦	統三韓, 神文四代	-	眞德, 太宗, 文武, 神文	自述
(3) 모죽지랑가	① 初得烏谷慕郎而作歌	初	-	得烏谷	自述
	② 去隱春皆理米~	去隱春皆理米	蓬次叱巷中	-	轉載

1) 일연의 전제와 자술

첫 번째 이야기는 죽지랑과 득오실의 의리, 죽지랑과 익선의 갈등, 간진과 익선의 반목, 花主와 익선의 대립으로 사건의 확대 전개되어 마지막으로 모랑리에 대한 지역 연좌제로 끝을 맺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① 제32대 효소왕 때에 竹曼郎의 무리에 得烏 級干이 있었다. 득오는 화랑도의 명부에 이름을 올려놓고 날마다 출근하더니 한 열흘 동안 보이지 않았다. 죽만랑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幢典 牟梁(部) 益宣 阿干의 부름을 받고, 부산성 창고지기로 부역하고 있음을 알고, 면회를 갔다. 그런데 득오실은 익선의 밭에서 부역을 하고 있었다. 죽지랑은 익선에게 휴가를 청하여 득오와 함께 돌아가고자 했으나 익선은 굳이 거부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使吏 佩珍이 推火郡(밀양군) 能節의 租 서른 섬을 익선에게 주고 득오실을 보내주도록 청했다. 그래도 허락하지 않자, 또 珍節 舍知의 말안장을 주니 그제야 허락했다. 그 사정을 들은 조정의 花主가 사자를 보내어 익선을 잡으려 했으나 도망하였으므로 그 말아들을 대신 잡아 성안의 못에서 목욕을 시켰더니 이내 얼어붙어 죽어버렸다. 효소대왕은 이 말을 듣고 명령하기를 모랑리 사람으로서 벼슬하는 자는 모두 쫓아 보내어 다시는 公署에 관계하지 못하게 하고, 승복을 입지 못하게 했으며, 만약 중이 된 사람이라도 번듯한 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또 勅史가 간진의 자손을 올려 柀定戶孫으로 삼고 그를 표창했다.

(1)-② 이때 園測法師는 혜동의 고승이었으나 牟梁里 사람인 까닭으로 僧職을 주지 않았다.

죽만랑과 득오의 관계를 이야기한 첫 번째 내용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 (1)-①은 죽만랑과 득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1)-②는 모랑리 처벌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1)-①의 내용은 轉載 부분이고, (1)-②는 一然의 自述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일연은 (1)-①의 전거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한 것이 문헌자료였는지, 혹은 구전자료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이 전제라고 추정하는 이유로는 세주를 들 수 있다. 죽지랑조에는 모두 세 개의 세주가 있는데, 항목(제목)에 붙인 세주를 제외하고 (1)-①에서만 두 개의 세주를 달고 있다. 출생담과 모죽지랑가의 내용에서는 세주가 하나도 없다.

(1)-③ 孝昭王代竹旨郎<亦作竹曼, 亦名智官>

(1)-④ 第三十二孝昭王代, 竹曼郎之徒, 有得烏<一云谷>

(1)-⑤ 左人<郷云皆叱知言奴僕也>

우선 이들 세주가 일연이 참고한 자료의 원문 내용인지, 아니면 일연이 단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③은 항목명인데, 그 세주를 살펴보면, 죽지랑 이름에 대한 이칭을 언급하고 있다. 일연은 죽지랑 외에 竹曼郎, 혹은 智官이라고도 불렸음을 알고 있었다. 일연은 죽지랑 관련 자료 중에 죽만랑, 지관이라고 쓰인 또 다른 자료를 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연이 참고한 자료는 죽지랑조의 자료(혹은 구술전승자료) 외에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연은 죽지랑조를 서술하면서 ‘智官’이라는 이름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제목은 죽지랑이라 하고, 모랑리 탄압설화의 (1)-①에서 죽만랑, 두 번째 이야기인 죽지랑 출생설화에서는 죽지랑만을 언급하고 있다. 세주와 관련해 추론해보면, 죽만랑이라는 표현은 일연의 참고한 원문 표현 그대로라고 생각된다. 당시 고려시대인들에게 가장 일반화된 이름이 죽만랑이 아니고, 죽지랑이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에는 일관되게 竹旨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세주는 일연이 달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의 또 다른 이름으로 지목된 智官은 역사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의 공식 이름이었을 것이다. 죽지

는 아명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異斯夫(생몰년 미상)의 다른 이름이 菴宗이었고, 居柒夫(? ~579)의 이칭으로는 ‘荒宗’ 또는 ‘居七夫智’·‘居柒夫智’가 있었음을 참고할 수 있다.⁸⁾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④의 득오에 대한 이칭 문제인데, 사실 본문 내용만을 본다면, 得鳥는 得谷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문 첫 번째 이야기 (1)-①에서 得鳥失이라 하였고, 세 번째 이야기 모죽지랑가 부분에서는 得鳥谷이라고 쓰고 있다.⁹⁾ 아마 ‘得鳥<一云谷>’은 ‘得鳥[失]<一云谷>’처럼 失이 생략된 것이 아닐까 한다.¹⁰⁾ 일연은 득오실이라는 이름보다 모죽지랑가에서 득오곡이라고 쓰는 것을 볼 때, 득오곡으로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¹¹⁾ 일연은 得鳥谷으로 알고 있었으나, 원문에는 得鳥失이라고 표현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주를 달았을 것이다. 한편 모죽지랑가를 서술한 부분에서는 득오곡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는 별개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1)-⑤ 세주는 左人에 대한 내용이다. 좌인에 대해 일연은 우리나라말로 皆叱知(갈지¹²⁾, 거리치¹³⁾, 거러치¹⁴⁾)라고 하며, 奴僕이라는 뜻이

8) 김태식은 부산성의 축조시기와 원축의 활동시기를 주목하면서 본 (1)-①의 내용이 효소왕대의 기록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죽지랑, 竹曼郎, 智官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하였다. 그 근거로서 효소왕 시대에 죽지랑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김태식, 앞의 논문, 56~60쪽). 한편 부례량으로 비정하기도 한다(이도흠, 앞의 논문, 153쪽). 지관은 죽지랑의 행적을 미화하여 붙인 한자 助語로, ‘슬기로운 구실아치’라는 뜻이므로 해석하기도 한다(황패강, 모죽지랑가 연구, 『어문연구』 21, 1991, 63쪽). 필자 역시 죽지랑, 죽만랑, 지관 등이 동일인이라고 보고 싶다. 그 이유는 이들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이러한 입론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9) 박노준은 득오의 명칭으로 득오, 득곡, 득오곡, 득오실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128~138쪽).

10) 황패강, 앞의 논문, 1991, 65쪽.

11) <一云谷>이라는 세주에서 ‘一云’이 과연 문헌 또는 구전자료인지 알 수 없으나, 구전자료일 가능성은 높다. 다만 세주를 달았다는 자체를 볼 때, 일연은 자신이 참고한 기본 자료와 다른 내용을 문헌(혹은 구전)에서 보고 들은 바를 기록했을 것이므로, 일연이 기본 자료를 전제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2) 이병도 역주, 『역주 삼국유사』, 한국학술정보, 2012, 248쪽.

13) 黃柄翊, 『三國遺事』 竹旨郎條와 「慕竹旨郎歌」의 의미 고찰, 『어문연구』 35-3, 2007, 196쪽.

14) 신중원, 『三國遺事 孝昭王代 竹旨郎條 譯註』, 『한국사상사학』 6, 1994, 97쪽.

라고 하였다. ‘노복’이라는 표현은 다분히 한자식 표현이다. 개질지는 신라, 혹은 고려시대에 향간(일반인)에서 사용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며, 일연이 이 말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다른 기록을 참고했을 수도 있다. 이상에서 (1)-①의 내용은 일연이 참고한 자료를 전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좌인’이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했던 용어인지 확인하는 것인데, 그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左人은 본 문건의 작성 시기와 작성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용례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左人이란 표현과 함께 闔人(문지기)이란 표현을 주목하고자 한다. 闔人은 『周禮』 天官冢宰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 사용 시기가 오래됨을 알 수 있다. 闔人은 皇宮의 5개 문 중 첫 번째 출입문과 마지막 문을 제외한 중간간의 세 개의 문을 지켰던 사람을 일컫는데, 후대에 宦官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했으며, 일반적으로 문지기를 뜻한다고 한다.¹⁵⁾ 참고로 감통편 진신수공조에는 문지기를 ‘門人’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使吏 佩珍의 자손을 올려 杼定戶孫으로 삼았다는 표현에서 ‘평정호’라는 표현 역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라고 한다.¹⁶⁾ 따라서 이 문건의 작성자는 중국 고전에 능하고, 유교적 교양이 풍부했던 인물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大王’, ‘勅’이란 표현도 황제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못 흥미롭다. 위의 인용문 (1)-③과 (1)-④에서 보듯이 제목과 첫머리에 ‘孝昭王’이라고 표현하고, 본문 (1)-① 끝부분에서는 ‘大王聞之’((1)-⑥ 참조) 라고 하여 달리 표현하고 있다. 항목명은 일연이 붙였을 것으로 보이며, 첫 문장의 ‘第三十二孝昭王代’라는 표현이 원문 그대로 인지 일연이 가필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¹⁷⁾ 그러나 끝부분의 ‘大王聞之’는 원문 그대로의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삼국유사』에서 항목명에 대왕으로 기록된 사례는 원성대왕, 신무대왕, 경문대왕, 진성여대왕, 김부대왕 등 5개뿐이다. 본

15) 李漢, 『星湖僿說』 권17, 人事門, 宦寺조 참조.

16) 당의 제도에 1리의 사무를 통할하는 戶를 평정호라고 하였다. 杼定戶孫을 杼定戶長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추정하였다(이병도 역주, 앞의 책, 249쪽). 호장은 고려 983년(성종 2) 吏職 개혁 때 불리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杼定戶孫이 杼定戶長으로 해석된다면, 이 자료는 고려 성종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 왕대를 冠頭한 것은 기록사건의 시간인식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尹榮玉, 『모죽지랑가 재고』, 『한민족어문학』 6, 1979, 78쪽).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일연의 자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문 내용 중에는 ‘第二十九大皇帝’(『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孝昭大王’(『삼국유사』 권2, 기이2, 万波息笛)의 표현도 보이고 있다. 706년에 제작된 『皇福寺 金銅舍利函銘』에도, ‘神文大王, 神陸太后, 孝昭大王, 隆基大王’ 등의 표현이 있어 대왕이라는 표현은 당대에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大王’이라는 표현과 함께 ‘勅牟梁里人從官者’, ‘勅史’ 등의 ‘勅’이란 표현도 주목된다. 勅史의 史가 행정 하급관리를 뜻하는 것인지, 使의 오자인지 알 수 없으나, 勅이라는 표현은 만파식적조에도 보이고 있다. 勅이라는 표현은 황제 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표현이 가능했던 시대는 고려시대보다는 당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風流黃卷’, ‘郎徒’, ‘花主’¹⁸⁾ 등의 표현을 볼 때, 본문 (1)-①의 작성자는 화랑도와 仙道에도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 아닐까 한다. 백률사조에서는 ‘國仙’이라는 표현이 보이며, 낭도를 ‘珠履’, ‘門客’이라고 표현하였다.¹⁹⁾ 문객은 낭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듯하며, 문객이라는 표현은 빈녀양모조에도 보인다.²⁰⁾

이상에서 보았듯이 유교 경전과 화랑 지식이 풍부했던 인물이 (1)-①의 글을 작성했을 것이다. 유교와 仙敎가 함께 풍미했던 사회 분위기를 추정해 본다면 中代 사회보다는 下代가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중대 사회는 화랑에 대한 관심이 하대에 비해 상대적 축소되고, 하대에 유교적 지식도 상당히 확대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건 작성자, 작성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로서 ‘海東(高德)’이라는 표현도 주목된다.

‘해동’이라는 표현을 분석하기 앞서 그 표현이 기록된 문장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필사본 『화랑세기』를 적극 활용하여 花主로서 신문왕비 신목왕후를 비정하기도 한다(김태식, 앞의 논문, 64~68쪽; 曹凡煥, 『神穆太后: 新羅 中代 孝昭王代の政治的 동향과 神穆太后的 攝政』, 『서강인문논총』 29, 2010.

19) 『삼국유사』 권3, 탑상4, 栢栗寺조, “天授三年壬辰(692)九月七日, 孝昭王, 奉大玄薩噉之子, 夫禮郎爲國仙, 珠履千徒.”

20) 『삼국유사』 권5, 효선9, 貧女養母, “孝宗郎遊南山鮑石亭<或云三花述> 門客星馳, 有二客獨後. …郎之千徒斂租一千石.” 『삼국사기』 권48, 열전8, 孝女知恩조에는 “郎徒幾千人, 各出粟一石爲贍”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孝女知恩傳과 비교해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주된 내용은 거의 같다.

(1)-⑥ 大王聞之, 勅牟梁里人 ㉠ 從官者, 並合黜遣, 更不接公署, ㉡ 不著
 黑衣, 若爲僧者, 不合入鍾鼓寺中, ㉢ 勅史上備瑠子孫爲秤定戶孫, 標異之.
 ㉣ 時園測法師, 是海東高德, 以牟梁里人, 故不授僧職.

(1)-⑥의 내용은 효소대왕이 모량리인에 대한 차별 정책을 실시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문장의 구성에 유의하여 살펴보면, ㉠ 모량리 출신 관리들은 내쫓고, ㉡ 모량리 출신은 출가를 금하고, 이미 출가하였다면 종과 북이 있는 번듯한 사찰에서 내쫓는다는 내용이고, ㉢ 간진의 자손을 평정 호장으로 삼았다는 조치, ㉣ 마지막으로 해동의 고승 원측법사가 모량리 출신이기 때문에 승직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특히 ㉣의 내용은 일연이 직접 쓴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 문맥상 탄압 대상의 단계는 관리(정치계)와 승려(불교계), 간진(사회계)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원측의 이야기(불교계)를 넣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원측의 사례는 불교계에서 서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술되고 있음은 이 기록이 원문이 아닌 다른 글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

둘째, 모량리의 탄압 기사에서 ㉠과 ㉡의 탄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 恩典도 베풀었다는 내용으로 마감하는 듯하다가 다시 ㉣ 원측에 대한 탄압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맥을 보면 간진 자손을 평정 호손으로 삼았다는 기록과 원측 관련 기사는 별개의 내용으로 후자는 일연이 부기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리(정치계)와 승려(불교계), 간진(사회계 혹은 정치계)과 원측(불교계)이라는 표현 방식을 취해 일반론의 서술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량리의 탄압 내용을 보면, 관리·승려에 대한 탄압조치와 간진 자손의 은전 내용이 서술되고 다시 원측에 대한 탄압조치가 기록되어 있다. 탄압-은전-탄압의 서술 순서가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원측의 탄압내용은 승려들의 탄압기사에 넣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해동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수 있다. 해동이라는 표현을 보면, 부르는 주체와 대상지역에서 차이가 난다. ①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부를 때 (海東曾子²¹⁾), ② 중국인이 신라를 부를 때(海東之事,²²⁾ 海東新羅華嚴法

師²³⁾, ③ 신라인이 신라를 부를 때(海東故神行禪師之碑²⁴⁾, ④ 고려인이 삼국을 부를 때(해동삼국사,²⁵⁾ 海東佛法之始²⁶⁾) 등 다양하다. ‘해동’이라는 표현은 신라 하대, 고려초의 금석문을 살펴볼 때, 崔彦撫(868~944)가 즐겨 썼음을 알 수 있다.²⁷⁾ ‘海東高德’이라는 표현은 마치 신라인이 아닌 사람이 신라를 부를 때 쓰는 표현으로 생각된다. 위의 ③과 ④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소한 원측과 동시대인이 아닌 그 이후의 사람들에 의해 불렸을 가능성이 높다. 『삼국유사』의 ‘海東安弘記’(권1, 기이1, 馬韓조), ‘海東名賢安弘 撰東都成立記’²⁸⁾이라는 표현을 참고할 때,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해동’이라는 표현의 대부분은 一然 자신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²⁹⁾

- 21) 『삼국사기』 권1, 기이1, 太宗春秋公조, “時百濟末王義慈, 乃虎王之元子也. 雄猛有膽氣, 事親以孝, 友于兄弟, 時號海東曾子.”
- 22) 『삼국사기』 권3, 내물이사금 26년(381), “二十六年, 春夏旱, 年荒民飢, 遣衛頭入符, 貢方物, 符堅問衛頭曰, 卿言海東之事, 與古不同, 何耶? 答曰, 亦猶中國, 時代變革, 名號改易, 今焉得同.”
- 23) 법장이 의상에게 보낸 편지 중의 내용(『삼국유사』 권4, 의해5, 義湘傳敎).
- 24) 김헌정 찬, 813년(헌덕왕 5) 건립.
- 25) 의천(1055~1101)의 『대각국사문집』에 『해동삼국사』(구삼국사)라 칭하였다(정구복, 「우리나라 국호고」, 『藏書閣』 29, 2013, 324쪽).
- 26)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소수림왕 5년(375) 춘2월, “五年春二月, 始創肖門寺, 以置順道, 又創伊弗蘭寺, 以置阿道, 此海東佛法之始.”
- 27) 최연위가 지은 탑비는 대략 10여 점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5개 탑비에서 海東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① 최연위 찬, 「師子山 澄曉大師(折中)寶印之塔碑銘并序」(924), “誠海東之佳境, 亦天下之福田也.” ② 최연위 찬, 「故眞空大師(口運)碑」(939년 건립), “此時北指雲岑呼爲雪岳中有海東.” ③ 최연위 찬, 「普賢山地藏禪院朗圓大師(開清)悟眞之塔碑銘并序」(940년 건립), “大師德高天下, 名重海東.” ④ 최연위 찬 추경, 「五龍寺法鏡大師(慶猷)普照慧光之塔碑銘并序」(944년 건립), “慶猷迥微麗嚴利嚴共海東謂之四無畏大士也.” ⑤ 崔仁滾 撰, 「朗空大師(行寂)白月棲雲之塔碑銘并序」(954년 건립), “孝恭大王, 驟登寶位, 欽重禪宗, 以大師獨步海東, 孤標天下.” 이 밖에 ⑥ 李夢游 撰, 「曦陽山鳳巖寺靜眞大師(號讓)圓悟之塔碑銘并序」(965년 건립), “鑒猶東顧, 傳于海東, 誰其繼者, 卽南岳雙僊慧昭禪師焉.” 등이 있다.
- 28) 『삼국유사』 권3, 답상4, 皇龍寺九層塔, “又海東名賢安弘撰東都成立記云, “新羅第二十七代女王爲主, 雖有道無威, 九韓侵勞, 若龍宮南皇龍寺, 建九層塔, 則隣國之災, 可鎮. 第一層日本, 第二層中華, 第三層吳越, 第四層托羅, 第五層鷹遊, 第六層鞞鞞, 第七層丹國, 第八層女狚, 第九層獺狚.”
- 29) 정구복, 「해동」,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국내에서 국명으로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용어로 海東, 東國, 大東, 靑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해동은 고려조부터 사용되었다고 하였다(정구복, 앞의 논문, 324쪽). 일연이 논평한 글에도 해

넷째, 원측법사 이야기는 출생설화(初述宗公爲朔州都督使)과 모죽지랑가(初得烏谷慕郎而作歌)의 이야기가 ‘初’로 시작하는 경우처럼, ‘時’라는 표현을 씬으로써 일연 자신이 기록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³⁰⁾ (1)-①의 내용에서 ‘時有使吏佩珪’라는 구절과 ‘時仲冬極寒之日’, ‘時有瑞雲覆天尊庫’(백률사조), ‘是時鄭恭奉使’(혜통항룡조)의 용례와 분명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죽지랑조에서 죽지랑 출생담은 ‘初’로 시작되고, 모죽지랑가 기사 역시 ‘初’로 시작됨을 볼 때, ‘時’로 시작하는 내용은 앞의 내용과 별개로 일연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 한다.

다섯째, 왜 죽지랑의 이야기가 효소왕대 기이편에 수록되었을까하는 문제 제기에 주목하고 싶다. (1)-①의 내용은 일연이 관련 자료를 참고해 거의 전제했을 것으로 보이며, (1)-②는 원측(613~696)이 귀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일연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한다.³¹⁾ 그렇기 때문에

동이라는 표현이 보인다(『삼국유사』 권4, 의해5, 圓光西學조, “陳隋之世, 海東人, 鮮有航海問道者, 設有猶未大振”). 일연은 승전축루조에서 ‘靑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해동고덕은 일연이 작성한 것이 아닐까 한다.

30) ‘時有’와 ‘時’라는 표현의 차이만으로 전제와 자술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앞서 추론한 내용과 관련해 일연의 자술 부분으로 생각해본다. 참고로 『삼국유사』에서 그 용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時有一熊一虎同穴而居”(고조선조), “時有一男子自言天帝子”(고구려조), “時有鳥與鼠來鳴”(사금갑), “時有老翁自池中出”(사금갑), “時有大虎走入座間”(진덕왕조), “時有白石者不知其所自來”(김유신조), “時有天唱空云”(태종춘추공), “時有貞州使走報”(문무왕법민), “時有一匣干奉使”(원성대왕), “又至二十一毗處王 時有我道和尚”(아도기라), “時有一人密持小弩於懷中”(보장봉노 보덕이암), “時有五色雲七日垂覆”(대만오만진신), “時有神卓和尚自南原 白崙戴來入當院”(백업사석탑사리), “時有信士宅居山下”(원광서학), 이상을 용례를 참고해도 일연의 자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31) 실제 원측이 모랑리 출신일 것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논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신중원, 『三國遺事 孝昭王代 竹旨郎條 譯註』, 『한국사상사학』 6, 1994, 99쪽을 참조해 보면, 이 기록에 보이는 원측에 대해 ① 긍정론(조명기,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 신태양사, 1962, 164~165쪽), ② 부정론(문명대, 『신라 법상종의 성립문제와 그 미술』 상, 『역사학보』 62, 1974, 151쪽), ③ 수정론(박종홍, 『원측의 유식철학』, 『한국사상사』 고대편, 범문사, 1966, 58쪽; 김영태, 『佛國寺의 華嚴法師 圓測에 대하여』, 『韓國佛敎學』 19집, 1994, 18~20쪽) 등 세 가지 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수정론에서 박종홍은 이 기록을 원측의 제자 道證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김영태는 죽지랑조의 圓測과 당 서명사 圓測, 불국사 華嚴講師 圓測和尚 등 세 명의 원측을 비정하였다. 이 기록은 효소왕대에 살았던 득오설이 그 소년시절 죽지랑의 낭도로 있었을 때 겪은 일을 회상한 이야기로서, 진평

이 기록을 기이편에 넣은 듯하다. 일연이 죽지랑조를 기이편에 넣은 것은 원측의 승직박탈을 주요 근거로 삼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일연은 (1)-①에서 모랑리에 대한 탄압 조치 중 불교 승려에 대한 규제에 더욱 주목한 것 같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기이편에 넣기에 부족함을 느꼈던 일연이 원측법사의 승직 불허 이야기를 추가해 넣음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첫째, 일연은 원문의 내용을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전재하였으나 마지막 원측관련기사는 일연이 부기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유교적 교양을 갖추고 화랑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며, 신라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강했던 인물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이 문건의 작성 시기를 추정해보기 위해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부산성과 모랑리

익선의 잘못이 모랑리 출신 관리와 승려들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은 당시 정치와 불교계에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받아들여졌다. 일연이 죽지랑조에 그의 출생담보다 앞서 이 이야기를 기술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효소왕대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탄압 조치가 있었던 시기에 대해 ①효소왕대설, ②진평왕대설,³²⁾ ③진평왕말-선덕여왕초설, ④기존의 견해들을 절충하여 익선의 뇌물 수수사건은 진평왕대, 모랑리의 탄압기사는 효소왕대설³³⁾ 등이 있다. 牟梁里(部)인의 처벌 사건을 진평왕대로 보는 연구는 죽

왕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원측 역시 진평왕대의 고승이라고 하였다. 현재 학계는 긍정론이 우세한 편이다.

32) 權惠永, 「圓測의 入唐과 歸國問題」,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1992, 335~337쪽. 원측의 입당시기와 귀국문제를 밝힌 연구에서 죽지랑의 출생시기를 609년(진평왕 31) 경으로 추정하고, 화랑이라는 사실에서 15년~18년 후인 624년~627년(진평왕 49) 경에 益宣의 不美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원측의 입당 동기는 진평왕대의 모랑부인에 대한 탄압과 골품체제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한다.

33) 辛鐘遠, 「斷石山神仙寺 造像銘記에 보이는 彌勒信仰 集團에 대하여-신라 中古期

지랑이 화랑으로서의 활동시기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견해는 죽지랑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의 하나인 ‘모죽지랑가’의 제작 시기와 맞물려 국문학계의 연구 경향도 비슷하게 전개되어 왔다.³⁴⁾

모랑부의 탄압사건이 과연 효소왕대에 있었던 것인지 밝히는 작업과 관련하여 부산성과 모랑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富山城

부산성의 축조 시기는 익선의 처벌 시기를 규명하는데 중요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 부산성은 663년(문무왕 3) 정월에 짓기 시작하여 665년(문무왕 5)경에 완성³⁵⁾되었기 때문에 득오의 부산성에서의 부역은 문무왕 이후이며, 익선의 처벌 시기는 효소왕대가 맞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³⁶⁾ 반면에 문무왕대의 신축은 사실 신축이 아닌 수축이라고 해석하여 진평

의 王妃族 岑喙部-, 『歷史學報』 143, 1994, 16~17쪽 및 『三國遺事 孝昭王代 竹旨郎條 譯註』, 100쪽 참조. 모랑리 탄압의 원인이 득오의 受賂 사건때문이었다기 보다, 이 탄압조치 전체를 신라 중고시대의 왕비족 모랑부 즉 岑喙部 세력을 견제하고 중대의 질서를 성립시킨 정치적 일대사건으로 파악하였다(『斷石山神仙寺造像銘記에 보이는 彌勒信仰 集團에 대하여』 참조).

34) <표 2>는 남무희, 「원축의 생애복원과 그의 정치적 입장」, 『한국고대사연구』 28, 2002, 128쪽 참조. 국문학계의 제설은 박재민(2005), 황병익(2007), 서정목(2013)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표 2> 모랑리 탄압 시기에 대한 제설(뒤의 참고문헌 참조)

견해		역사학자	국문학자
긍정론	효소왕대	이홍직(1971), 김제경(1978), 홍기삼(1993), 남무희(2002), 김태식(2008)	양주동(1942), 지현영(1947), 박노준(1977), 김승찬(1977), 신동훈(1990), 이도흙(1998), 신재홍(1998), 황병익(2007)
부정론	진평왕대	삼품창영(1943), 김철준(1975), 신종원(1987), 권덕영(1992), 김영태(1994), 김창석(2001)	
	진평왕말 선덕왕초	이종욱(1986)	김승찬(1984)
	선덕-진덕왕대		박재민(2005)
절충론	진평왕/효소왕대	신종원(1994)	조동일(1994)

35) 『삼국사기』 권7, 文武王 3년조 및 『삼국유사』 권2, 기이2, 文虎王法敏조 참조.
 36) 김승찬, 「죽지랑가신고찰」, 『국어국문학』 13·14, 부산대학교, 1977 ; 김태식, 「『三國遺事』 竹旨郎條 탈구축을 통한 新羅 花郎과 그 花主」 참조.

왕대를 처벌 시기로 이해하기도 한다.³⁷⁾ 후자는 부산성의 입지 조건과 백제와의 치열한 각축 상황을 염두해 둔 입론이다. 부산성은 왕도 西郊의 끝지점에 있으며, 달구벌(대구)로 통하는 전략 요충지였다. 『삼국유사』 善德王 知幾三事조에는 선덕여왕 때 백제군이 富山 아래의 女根谷까지 침입한 기록이 전한다. 그런데 부산성 여근곡 전투에 대해서 이론이 없지 않다. 여근곡 전투는 부산성이 아닌 합천군 옥문곡 전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그것이다.³⁸⁾ 백제군 500명이 富山을 넘어 女根谷까지 침입할 때까지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부산성은 진평왕대에 토성으로 존재했다가 문무왕대에 石城으로 고쳐 쌓은 것이며, 이곳이 대백제전으로 위험한 곳이었기에 죽지랑이 낭도 137인과 함께 갔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성을 쌓지도 않았던 진평왕대에 득오가 부산성의 창고지기로 갈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득오실이 665년 이후에 부역을 나갔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진평왕대의 화랑 죽지랑의 낭도였으니, 득오실의 나이는 죽지랑과 비슷하거나 죽지랑보다 위였을 것이다. 효소왕대의 득오는 70~80대의 나이였으며, 이미 부역에서 면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원래는 부산성이 아니고, 부산성이 있는 경주 서교 지역으로 부역을 나갔는데, 후대에 부산성으로 와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³⁹⁾

37) 李鍾學, 「죽지랑과 부산성에 관한 一考察」, 『경주연구』, 경주발전연구원, 1994, 117쪽(『신라화랑군사사연구』, 서라벌군사연구소출판부, 1995). 부산성을 신축이 아닌 수축한 것으로 이해하여 문무왕 이전에 이미 축성했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는 백제와의 대립 상황 등 국제정서를 염두해 둔 추론이다.

38) 『삼국유사』 권2, 기이1, 善德女王 知幾三事조, “西郊富山下, 果有女根谷, 百濟兵五百人 來藏於彼 並取殺之.”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5년(636)조에서 玉門谷 전투를 富山 아래의 女根谷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였다(夏五月, 蝦蟆大集宮西玉門池, 王聞之謂左右曰, 蝦蟆怒目, 兵士之相也, 吾嘗聞西南邊, 亦有地名玉門谷者, 意或有隣國兵潛入其中乎, 乃命將軍闕川·弼吞, 率兵往搜之, 果百濟將軍于召, 欲襲獨山城, 率甲士五百人, 來伏其處, 闕川掩擊盡殺之). 그러나 이것은 옥문과 여근의 뜻이 같은 데서 기인한 잘못으로 보고, 그 위치를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와 경상남도 합천 사이의 어느 지점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으며(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41, 663쪽),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金泰植,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남대 백제연구소, 1997, 75~82쪽).

39) 『삼국유사』 권1, 기이1, 奈勿王金堤上조를 보면, 박(김)제상이 왜로 갈 때는 늘지

使吏 侃珍이 推火郡(밀양군) 能節의 租 서른 섬을 城 안으로 수송한다(輸送城中)는 기록에서, 이 성은 부산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축성 이후 이곳에 세곡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으며, 따라서 이 기록은 부산성 축성 이후에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다.⁴⁰⁾ 부산은 朱砂山·五峯山·五老峯山·닭벼슬산이라고도 불린다. 고려시대에는 특히 下枝山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2)-① 金克己의 시의 서문에 이른다. 경주 下枝山은 세속에서 富山이라 부른다. 이 산 남쪽에 朱巖寺가 있고, 절의 북쪽에 臺巖이 있으며, 대암 서쪽에 持麥石이 있다. 옛날 김유신이 보리로 술을 만들어 장교들을 대접하던 곳이라 한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8·9보쯤 가면 朱巖이 있다. 예전에 도인이 神衆三昧를 얻고, 스스로를 말하기를, ‘진실로 궁녀가 아니라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하였다. 神衆들이 그 말을 듣고, 궁녀를 흠쳐서 공중으로 날아가서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돌려보내곤 하였다. 왕이 궁녀에게 자는 곳마다 붉은 모래로 표시하게 하고, 이어 군사를 보내 찾게 하였다. 城과 시장, 높은 산골짜기까지 찾았으나 찾아낼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바위에 붉은 모래의 흔적이 찍혀 있는데, 늙은 스님이 그 안에 앉아 있었다. 왕이 그의 요상하고 사물을 미혹시키는 행위를 성내어 군사

마립간 때로서 망덕사가 창건되기 이전임에도 그 절을 묘사하고 있다(“初堤上之發去也, 夫人聞之, 追不及, 及至望德寺門南沙上, 放臥長號, 因名其沙曰長沙”). 아마 후대에 이 글을 작성하면서 그때 박제상 부인의 자취가 있는 부근에 망덕사가 들어섰고, 그래서 망덕사를 기준으로 옛 일을 기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듯 부산성이 진평왕대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후대에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득오의 부역 장소에 부산성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부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수 있다고 본다. 박제민은 「<모죽지랑가>의 사건 발생 시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0, 2005, 151~152쪽에서 부산성의 축조 시기와 술종공의 삭주 부임에 대해 기록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전개한 바 있다.

- 40) 부산성(사적 제25호)은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五峰山 정상에 위치하며, 성내에는 南門址, 軍倉址, 練兵場址, 朱砂庵址, 연못터, 暗門址, 우물터 등이 남아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부산성은 영천과 청도에서 경주로 들어가는 곳에 위치해 있어 왕도의 방위를 위해 축조한 성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성은 밀양, 청도 방면의 세곡들을 왕경으로 수송하여 보관하던 곳이기도 했으며, 이곳의 창고들은 조선 초기까지도 이용되었다고 한다(하일식, 「김대성과 죽지랑의 이야기를 따라」, 『내일을 여는 역사』 27, 2007, 230쪽).

수천 명을 보내어 죽이고자 하였다. 스님이 눈을 감은 채 神呪를 외우니, 귀신 군사 수만 명이 산골짜기에 잇따라 늘어섰다. 군사들이 두려워하여 돌아왔다. 왕은 그가 비범한 사람임을 알고, 궁궐로 맞아들여 國師로 삼으니 그의 요괴한 일이 드디어 없어졌다.(『신증동국여지승람』⁴¹⁾)

위의 朱巖道人的 자료는 고려 명종(재위 1148~1209) 때의 학자 김극기가 지은 것이다. 이를 보면, 신라시대에는 주로 富山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朱砂山 또는 五峯山이라고 불린다. 부산이라는 표현을 염두해 두면, 이 문건((1)-①)이 고려시대가 아닌 신라시대에 작성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주암도인 설화를 볼 때, 주사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당시 신라 사회에 퍼져있었을 듯하다. 주사산이 모량부 지역에 있으니 이 지역 정서는 反정부적 성향을 일정기간 가지고 있었을 듯싶다. 모량리 출신 김대성이 재상 김문량의 아들로 환생하였다는 설화 역시 前生 당시인 신문왕대의 모량리가 처한 입지를 반영하고 있는 듯싶다.⁴²⁾ 최소한 모량리에 대한 왕실의 부정적 인식은 손순 설화를 볼 때, 흥덕왕대에는 해소되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부산성을 검토해 결과, 첫째, 부산성은 663년 축성되어 진평왕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록은 문무왕대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부산의 지명 변천은 신라시대에는 부산, 고려시대에는 하지산, 현재는 주사산(혹 오봉산)이란 지명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부산성이란 표현을 보면, 고려시대가 아닌 신라시대에 작성된 문건이 아닐까 한다.

4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경상도 경주부, 古蹟, 주암사지맥석조. 이 자료는 혜통의 활동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고를 준비하고 있다.

42) 효소왕 이후 모량리 사람으로 왕비로 간택되거나 벼슬자리에 오르거나 승직에 오른 자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음을 볼 때, 모량리 탄압은 역사적 사실이며, 김대성이 모량리인에게 가해졌던 규제를 넘어서는 길은 다른 출신지로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이도흠, 「모죽지랑가의 創作背景과 受容意味」, 『한국시가연구』 3, 1998, 144쪽).

(2) 모량리

모량에 대해서 죽지랑조에는 ‘幢典牟梁益宣阿干’, ‘牟梁里人從官者’ 등 두 기록이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모량, 모량리는 모량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왔다. 익선 한 개인의 잘못으로 모량부 전체가 連坐되어 엄청난 처벌을 받았다고 이해해 왔던 것이다. 모량부의 연좌제가 언제 해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조치라고 하겠다. 익선이 공적인 부역에 인원을 차출하여 자신의 밭에 그것도 겨울에 밭일을 시켰다는 죄, 뇌물을 받았다는 죄를 지었다고해서 한 마을(洞里)에 대한 조치였다면 모를까 과연 한 部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한편 中古期 지증왕의 비 연제부인과 진평왕의 둘째 비 僧滿夫人 孫氏가 모량부 출신이며, 법흥왕·진흥왕·진지왕 등의 왕비 박씨 역시 모량부 출신으로 이해하고 있다.⁴³⁾ 전통적으로 모량부는 중고기에 왕비족을 배출한 지역이었는데, 진평왕이 왕비의 출신부에 대해 탄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⁴⁴⁾

모량, 모량리에 대한 풀이는 대략 ① 모량부,⁴⁵⁾ ② 모량부의 마을,⁴⁶⁾ ③

43) 辛鐘遠, 『斷石山神像寺 造像銘記에 보이는 彌勒信仰 集團에 대하여』, 『歷史學報』 142, 1994, 15, 19쪽.

44) 왕비족의 출신부인 모량부에 대한 탄압은 중고기가 아닌 시기에 가능했던 사실이 아닐까. 실제로 중고기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중고기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기를 흔드는 역모사건이라면 모를까 일개 지방 관리의 부정을 빌미삼아 한 지역 전체에 대한 연좌제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국기를 흔드는 역모사건으로 선덕여왕대 비담의 난이나 신문왕대의 김흠돌의 난 정도를 비정해 볼 수 있다. 신문왕대 김흠돌이 모반을 꾀하자 ‘가지나 잎사귀 같은 잔당’을 3~4일에 걸쳐 구석구석까지 수색, 체포, 처결하였을 때, 부산지역까지 수색 범위가 미치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혜공왕 때 반란을 도모했던 각간 大恭 등의 재산이 사랑리와 모량리에 있었다는 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삼국유사』 권2, 기이2, 惠恭王, “新城長倉火燒, 逆黨之寶穀, 在沙梁 牟梁等里中者, 亦輸入王宮”). 그렇다고 필자가 모량리의 탄압 사건이 신문왕대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모량리 탄압과 같은 사건은 강력한 왕권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45) 李鍾旭, 「三國遺事 竹旨郎條에 대한 一考察」, 『韓國傳統文化研究』 2, 1986, 218쪽. 중고기에 部 단위의 집단성, 단위정치체성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고, 모량리를 모량부 전체라고 해석하고, 진평왕대의 일이라고 하였다(윤선태, 「신라 중고기 육부의 구조와 그 기원」, 『신라문화』 44, 2014, 317쪽).

46) 전덕재, 「신라 里坊制의 시행과 그 성격」,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6, 2005, 94쪽.

모량부의 모량리 등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자비마립간 때 坊里名을 새로 정했다는 사실에 근거하면,⁴⁷⁾ 모량리는 모량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량부 내의 한 마을로서 모량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①과 ②로 이해해 왔다. ③의 설을 따른다면, 모량부를 대표하는 마을로서 모량리를 들 수 있다. 모량리는 현재 경주시 건천읍에 있다. 건천읍 모량리는 단석산 북동쪽에 있으며, 부산성의 소재지는 건천읍 송선리로서 모량리와 부산성은 붙어있다.⁴⁸⁾

신라 모량부의 권역에 대해서 정설이 없으나 대략 선도산(東)⁴⁹⁾-단석산(南)-부산(西)을 아우르는 신라 왕도의 북서부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모량부 내의 세 산은 김유신과 매우 관련이 깊은 곳이다. 서형산(선도산)은 태종 무열왕비 문명왕후(文姬; 김유신의 누이동생)의 언니 寶姬의 꿈에 등장하는 산이다. 특히 선도산은 중국 황제의 딸 娑蘇가 神母로 있으며, 모량부는 신라 선도신모신앙이 일어난 지역이었다. 또한 진평왕 때 智惠비구니를 도와 불사를 이루게 하였다.⁵⁰⁾ 선도산은 小祀의 대상으로 신라에서 중시했던 산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부산 朱岩에는 김유신 관련 설화가 전해지는 곳이며, 부산 남서쪽에 있는 단석산은 金庾信의 수도처였다.

『삼국유사』에서 ‘모량리’는 네 곳에서 확인된다.⁵¹⁾ 이 지역의 인물로는

47)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12년(469), “十二年春正月定京都坊里名.”

48) 건천읍 일대에는 방내리·천포리·조전리·금척리 등지에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밖에 송선리 부산성·산성마을, 방내리 단석산, 신평리 여근곡 마을이 있다.

49) 서악(선도산)은 모량부에 속해 있었다. 『삼국유사』 권1, 왕력1, 진성여왕조, “火葬散骨于牟梁西岳, 一作未黃山.” 선도산은 신라에서 西薦, 西述, 西兄이라고도 불렀다(홍순욱, 「신라 삼산·오악에 대하여」,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4, 1991, 46쪽;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317쪽).

50) 『삼국유사』 권5, 감통7, 仙桃聖母隨喜佛事조.

51) 자료마다 작성시기와 찬자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일연의 기록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삼국유사』 권1, 왕력1, 제24 진흥왕조, “母只召夫人, 一作息道夫人, 朴氏. 牟梁里 英失角干之女.” ② 『삼국유사』 권2, 기이2, 惠恭王, “新城長倉火燒, 逆黨之寶穀, 在沙梁·牟梁等里中者, 亦輸入王宮.” ③ 『삼국유사』 권5, 효선9, 大城孝二世 父母神文代, “牟梁里<一作浮雲村>之貧女, 慶祖有兒, 頭大頂平, 如城因名大城.” ④ 『삼국유사』 권5, 효선9, 孫順埋兒 興德王代, “孫順者<古今作孫舜> 牟梁里人. …醉山<山在牟梁西北>” ⑤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10년, “十年賊起國西南, 赤其袴以自異人, 謂之赤袴賊, 屠害州縣, 至京西部牟梁里, 劫掠人家而去.”

신문왕 때, 실제로 경덕왕대의 실존인물인 김대성, 흥덕왕 때 손순 등이 있다. 469년(자비마립간 12) 때 6部를 방리제로 개편되면서 더 이상 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삼국유사』의 네 곳의 기록 역시 진흥왕, 신문왕, 해공왕대, 흥덕왕대의 기사로 모두 자비마립간 이후에 해당한다.

익선으로 인해 탄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라의 방리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비마립간 때 처음으로 방리제를 실시했다는 기록과 함께, 신라 전성기의 왕경은 178,936호, 1360방, 55리, 또는 360방, 33리라는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⁵²⁾ 178,936戶를 家戶가 아닌 戶口로 보기도 하며, 坊에 대해서도 360방이 옳다는 견해가 다수이다.⁵³⁾ 한편 55리를 서라벌 안의 넓이로 해석하기도 하나⁵⁴⁾, 둘레가 아닌 里村의 개수로 보는 것이 맞을 듯싶다. 35리와 55리에 대해서는 中代의 35리가 下代에 55리로 확장되었다는 연구가 있다.⁵⁵⁾ 또한 왕경은 4단계에 걸친 개발로 인해 월성 중심에서 점차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⁵⁶⁾

52) 신형석, 『新羅 慈悲王代 坊里名의 設定과 그 意味』, 『慶北史學』 23, 2000 참조.
 ① 『삼국유사』 권1, 기이1, 辰韓, “新羅全盛之時,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② 『삼국유사』 권5, 괴은8, 念佛師, “南山東麓有避里村, 村有寺, 因名避里寺. 寺有異僧, 不言名氏, 常念弥陀, 聲聞于城中三百六十坊, 十七萬戶, 無不聞聲.” ③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新羅, “今按新羅始祖赫居世前漢五鳳元年甲子開國, 王都長三千七十五步, 廣三千一十八步, 三十五里, 六部.”
 53) 이에 대한 제설을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현강왕대 왕경의 규모(뒤의 참고문헌 참조)

	규모	연구자
戶	178936戶	이기봉(2002)
	178936口	이병도(1959), 전덕재(2005)
坊	1360坊	전덕재(2005)
	360坊	이병도(1959), 신영훈(1984)
里	35里	중대의 규모
	55里	하대의 규모

54) 신영훈, 『신라통일기의 옥사 건축』, 59쪽, “35리와 55리의 차이는 바둑판형 도로망이 형성된 넓이는 35리이고, 서라벌의 전판도는 55리”라고 해석하고 있다.
 55) 전덕재, 앞의 논문, 2005, 118쪽.
 56) 김재홍, 『신라 왕경의 개발 과정과 발전 단계』, 『한국사학보』 52, 2013, 220쪽.

“사랑부 구원사의 서남리”라는 기록⁵⁷⁾을 보면, 部 아래에 里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35리를 6부에 배정해보면, 각 부당 5-6리, 55리라면 각 부에 9리가 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6부의 규모가 서로 차이를 보이나, 대략 각 부에는 5-9개의 리가 있으며, 모량부 지역에 芳內里, 부운리가 있었다는 연구⁵⁸⁾를 보면, 모량리라는 마을을 비정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6부 178,936戶를 55리로 나누어보면, 1리당 3,253戶, 혹은 3,253口(1戶 5인으로 집계하면 약 650戶)가 되어 중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 중국은 1리당 25家-100家로 이루어져 있었다.⁵⁹⁾ 당나라 때, 里와 별도로 村이 있었는데, 里를 관리하는 里正이 있듯이 村에도 村正을 두었다. 그런데 그 촌이 100家가 넘으면 촌정 1인을 더 둔다는 기록⁶⁰⁾을 볼 때, 里와 村은 규모는 100家 정도로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서울 경기 내에 里, 지방에 村을 두었다. 신라에도 里와 村이 있었으나, 그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全州碧骨郡 都那山村 大井里人”⁶¹⁾이라는 기록

57) 『삼국유사』 권5, 감동7, 善律還生조, “律曰汝家何在, 曰沙梁部久遠寺西南里也.”
 58) 전덕재, 앞의 논문, 2005, 94쪽 ; “牟梁里<一作浮雲村>之貧女, 慶祖”라는 기록에서 모량리는 부운촌으로도 불렸던 것 같다.
 59) 柳馨遠, 『田制後錄攷說』上, 鄉黨(『磻溪隨錄』 권7).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중국의 마을 규모 (단위 : 家)

		鄰	保	閭	邑	族	里	黨	州	鄉	縣
周禮	郊內	-	-	-	-	100		500	2500	12500	-
	郊外	5	-	-	-	-	25	-	-	-	2500
齊	郊內	-	-	-	-	-	50	-	-	2000	-
	郊外	-	-	-	30	-		-	-	3000	9000
後魏		5	-	-	-	-	25	125	-	-	-
隋		-	5	25	-	100	(25)	(100)	-	(500)	-
唐		4	16		-	-	100	-	-	500	-

60) 柳馨遠, 『田制後錄攷說』上, 鄉黨(『磻溪隨錄』 권7, “在邑居者爲坊, 別置正一人, 掌坊門管鑰, 督察姦非, 并免其課役, 在田野者爲村, 別置村正一人, 其村滿百家, 增置一人.” 중국의 경우, 里에는 里正, 촌에는 村正이 있었다. 신라 역시 이와 같은 조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전덕재, 앞의 논문, 114~115쪽).
 61) 『삼국유사』 권4, 의해5, 關東楓岳鉢淵藪石記. 이 글은 고려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촌 아래에 里가 있는 것은 고려시대의 편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은 촌 아래에 里가 편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그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단지 신라 촌락문서의 서원경 4개촌의 孔烟을 편호로 보았을 때, 25家를 1村으로 추산했을 것으로 보인다.⁶²⁾

6부는 중고기 이후 해체되어 里로 변화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해 이 기사가 효소왕대를 발생기점으로 한다면, 이때의 모랑리는 모랑부 내의 里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⁶³⁾ 더 나아가 모랑리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 모랑부의 중심 지역 내에 들어졌던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3) 幢典 익선과 使吏 侃珞

본 기록에서 죽지랑을 제외하고 級干 得烏, 幢典 益宣, 使吏 侃珞, 舍知 珍節 등은 사서에 보이지 않는 인물이다. 그리고 幢典과 使吏, 能節租, 枰定戶는 죽지랑조에서 처음 보이는 직명이고, 용어이다. 사서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들이 모두 가공의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등장인물들을 분석해 보면, 幢典 阿浪(제6위) 益宣은 6두품 이상의 신분 소유자이고, 곡식보다 馬具에 관심이 많은 武的인 인물로 나타난다. 또한 욕심이 많고, 융통성 없는 비루한 인물로 비정되고, 도망자로서 정직한 인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級干(제9위) 得烏는 6두품 이상의 신분을 소유한 자이고⁶⁴⁾, 죽지랑의 낭도였다. 매일 화랑도 모임에 빠지지 않은 성실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使吏 侃珞은 퇴화군의 능절조 30석을 부산성으로 운반하는 관

62) 孔烟을 자연호로 볼 경우, 공연의 수가 그대로 家戶數가 되므로 총가호수는 47호가 되고 1가호당 평균 인구는 9.8명 즉, 약 10명이 된다(총가호수를 44호로 보면 10.5명). 반면 편호로 볼 경우, 한 가족 구성원의 평균인원수를 5명으로 계산하면 자연가호의 수는 92.4호, 즉 대략 92호가 된다. 물론 공연을 편호로 보았을 경우인데, 92호를 4촌으로 나누면, 각 촌당 평균 23호가 된다. 앞으로 고찰을 요하는 내용이다.

63) 신라의 사회구성체였던 6촌 이후의 6부 등의 지배구조 등을 배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현재 모랑부의 모체가 되는 집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사라리 혹은 금척리와 인접한 곳이 탄압 사건의 발단지가 되었으리라 판단된다는 연구가 있다(김창석, 「신라 倉庫制의 성립과 租稅 運送」, 『한국고대사연구』 22, 2001, 224~225쪽 ; 김호상·최진욱, 「신라왕경연구 II- 왕실창고와 산성창고를 중심으로」, 『慶州史學』 30, 2009, 52쪽.

64) 득오는 원래 낮은 신분이었으나 익선 정벌의 계기를 만든 공로로 6두품으로 승격했을 가능성을 논한 연구도 있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제3판, 1994, 160쪽).

리였고, 화랑을 존중하였으며, 30석을 줄 정도의 재력가로서 그려지고 있다. 솜知(13위) 珍節은 馬具 소유자로서 죽지랑의 낭도로 보기도 한다.⁶⁵⁾ 이상의 등장 인물에 대해 언급할 내용은 없고, 幢典, 使吏, 能節租, 枰定戶 중 使吏라는 표현이 주목될 뿐이다.⁶⁶⁾

한편 모랑리 탄압 기사에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鐘鼓寺'라는 기록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범종과 범고가 있는 사찰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신라의 모든 사찰에 범종과 범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따로 엮어 만든 草庵이 아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찰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사찰일 것이며, 종고사와 일반 초암의 승려들의 처우도 달랐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랑리의 탄압 사건에서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몸을 씻는 행위는 고구려, 신라의 祓禊 의식과 유사한 신앙을 보여준다. 또한 아들이 대신 아버지의 죄값을 치르는 일종의 연좌제를 볼 수 있다.⁶⁷⁾ 탄압 사건 속에는 신라의 오래된 풍습이 저변에 깔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국가의 도승제와 사찰 관리가 어느정도 진행된 시점에서나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불계와 같은 풍습과 연좌제의 전승은 신라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 문건의 작성 시점이 고려시대는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65) 이종욱, 「三國遺事 竹旨郎條에 대한 一考察」, 『韓國傳統文化研究』 2, 1986.

66) 使吏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① 출장 관속(리상호, 『국역 삼국유사』, 신서원 영인, 1960, 175쪽), 혹은 ② 史上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채웅석, 「신라시대 사회변동과 호부층의 성장」, 『고려시대의 국가와 지방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26쪽). 使吏에 대해 몇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다. ① 중고기에 城과 村의 지방관인 道使의 吏屬, ② “勅史上備瑠子孫”이라는 기록에서 使는 史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 使吏를 史吏로 보는 것. 史는 신라 중앙의 행정관청의 5등관으로 솜知 바로 아래에 있었던 관직이고, 吏는 史를 이어 고려 초기부터 西京 및 開京의 관직체계의 가장 보편적인 말단 吏屬職이었다. ③ 조선시대의 徒史와 吏胥를 합한 것(柳相弼, 『東槎錄』 「日錄」 1811년 3월 초9일, “今自有秩以下, 至于徒史吏胥, 凡在同舟而濟者, 無問預祭與否, 自今日不飲酒.”)으로 본다하더라도, 시대나 두 개의 직임이므로 본 문제의 추론에 어긋난다. 이 문제는 본 문건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 요긴하다. 논증을 할 수 없지만, 두 번째의 추론에 심증이 간다.

67) 주보돈, 「신라시대의 연좌제」, 『대구사학』 25, 1997, 30~32쪽.

3. 죽지랑 출생설화

1) 설화의 전제와 일연의 자술

죽지랑의 출생담은 미륵과 관련한 출생 연기설화와 죽지랑이 장성하여 재상을 지냈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있다. 이 출생담에 대한 연구는 화랑과 미륵보살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고들이 주류를 이룬다. 사실 본 출생담이 효소왕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뒷부분((2)-②)의 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2)-① 앞서 述宗公이 朔州都督使가 되었다. 장차 任地로 갈 때[將歸理所], 기병 3천 명으로 공을 호송했다. 죽지랑에 이르니 한 거사가 그 고개의 길을 평탄하게 닦고 있었다. 공은 그것을 보고 칭찬했으며, 거사 또한 공의 위세에 감동하였다. 공이 주의 치소에 부임한 지[公赴州理] 한 달이 지나, 거사가 방안에 들어오는 꿈을 부부가 같이 꾸었다. 공은 이튿날 사람을 보내어 거사의 안부를 물었으나, 이미 거사가 죽은 지 며칠 되었다. 그가 죽은 날짜가 꿈꾸던 그날이었으며, 공은 ‘아마 거사가 우리 집에 태어날 것 같구려’라고 말하였다. 다시 군사를 보내어 고개 위 북쪽 봉우리에 장사지내게 하고, 돌로 미륵불 하나를 새겨 무덤 앞에 모시게 했다. 공의 아내는 꿈꾼 날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이윽고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竹旨라 했던 것이다.

(2)-② 죽지랑은 커서 벼슬하여 유신공을 따르며 副帥가 되어 三韓을 통일[統三韓]했으며 진덕·태종·문무·신문왕의 4대에 걸쳐 冢宰가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다(壯而出仕, 與庾信公, 爲副帥, 統三韓. 眞德太宗文武神文四代爲冢宰, 安定厥邦).

죽지랑의 출생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①에서 죽지랑이 태어나게 된 연기설화를 보여주고, (2)-②에서는 장성한 이후 활동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2)-①의 내용은 일연이 구전자료를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작성된 문헌자료를 인용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전제와 자술의 구분이 쉽지 않으나 전자라고 추정되며,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避諱法을

쓰고 있는 점이다. ‘將歸理所’, ‘公赴州理’에서 ‘理’는 고려 成宗의 이름인 ‘治’의 피휘한 것이라고 한다.⁶⁸⁾ 그렇다면 일연이 원자료를 보고, 피휘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싶다. 또한 출생담은 고려 성종 이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죽지랑조의 첫 번째 내용인 모량리 탄압설화와 비교해 분명한 차이점을 든다면, 출생담에서는 고유인명이나 지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述宗, 朔州, 竹旨嶺 정도이다. 고유인명과 지명이 적다는 것은 이 자료가 구전자료에 기초했음을 반증해 주는 사실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일연은 구전자료를 정리한 문헌자료를 본 것이 틀림없다.

반면에 (2)-②는 일연의 自述이 아닐까 한다. 첫째, ‘太宗’이라는 표현을 주목하고 싶다.

『삼국유사』에서 太宗武烈王, 太宗大王, 太宗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으며, 왕력편의 ‘태종무열왕’이라는 표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太宗(大王, 王)’이라고 쓰고 있다. 무열왕까지 사용한 예는 많지 않으며, 일연 본인이 쓴 세주 ㉔과 ㉕에서도 태종이라고 하였다. 일연은 태종무열왕보다는 태종을 즐겨 사용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㉖ 太宗文武王이라는 표현을 보면 (2)-②는 일연의 자술임을 알 수 있다.

(2)-②가 일연의 자술이라고 생각되는 또 다른 이유는 ‘三韓’과 ‘冢宰’라는 표현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앞서 海東이란 표현이 일연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듯이, ‘統三韓’이라는 표현 역시 일연 본인의 표현 양식으로 생각된다. ‘三韓’이라는 표현은 (2)-①에서도 쓰고 있는데, ‘時三韓兵亂’이 그것이다. <표 5>의 ㉗에서 ‘太宗統三’이라는 표현이 있으며, 이 기록은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諺傳)를 듣고 일연이 쓴 자술 내용으로 보인다. ‘統三’, ‘統三韓’이라는 표현을 볼 때 모두 일연의 자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冢宰’라는 표현은 3곳에 보이며, 일연 본인이 쓴 분명한 자료는 세주인데, 백률사조에서도 찾아진다.⁶⁹⁾ <표 5>의 ㉘ 또한 일연의 세주 부분

6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삼국유사』 교감 참조. 『삼국유사』에서 ‘州治’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으며, ‘治所’라는 표현은 1곳에 보인다(『삼국유사』 권4, 의해5, 二惠同塵, “初(天真)公之弟, 有得官赴外者, 請公之選應, 歸治所”). 理所로 고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추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데, 일연의 실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표 5> 『삼국유사』의 태종 용례

용례	내용	출전
太宗武烈王	㉠ 第二十九太宗武烈王<名春秋, 金氏, 眞智王子龍春卓文興葛文王之子也.>	권1, 왕력
太宗大王	㉡ 第二十九太宗大王名春秋姓金氏	권1, 기이1, 太宗春秋公
	㉢ 太宗大王勅奉德寺, 設仁王道場七日, 大赦	권2, 기이2, 聖德王
太宗(王)	㉣ <後至太宗王時, 宰輔金良圖信向佛法>	권3, 흥법3, 原宗興法 厭騰滅身
	㉤ 諺傳太宗統三已後 藏兵鑿於谷中, 因名之	권3, 탐상4, 鑿藏寺弥陀殿
	㉥ <乃太宗文武王之世也, 以此知此文爲誤, 故不取之>	권3, 탐상4, 臺山五萬眞身
	㉦ 時太宗聞之曰, 此師殆欲得貴婦, 産賢子之謂, 爾國有大賢, 利莫大焉	권4, 의해5, 元曉不羈

인데, ‘宰輔’라고 쓰고 있다. 비슷한 표현으로 혜통항룡조에서 ‘宰相’⁷⁰⁾이라고 하였다. 일연이 신라의 角干, 大角干 등을 冢宰, 宰相, 宰輔 등으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죽지랑의 활동 시기와 관련해 “진덕·태종·문무·신문왕의 4대에 걸쳐 총재가 되었다”는 내용 속에 효소왕대에 그에게 번고가 있었음을 일연은 암시하고 있다. 일연은 죽지랑이 효소왕대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죽지의 생몰년을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2) 죽지랑의 생몰년

죽지랑의 생몰년에 대해서 이미 언급된 논고가 많지만 다시 밝혀보고자 한다.⁷¹⁾ 그 과정에서 그의 정치적 성향을 찾아보고, 중대 사회에서의

69) 『삼국유사』 권3, 탐상4, 栢栗寺, “大角干<羅之冢宰爵名>” 이 밖에 ① “王一日召庶弟車得公曰, 汝爲冢宰, 均理百官, 平章四海”(『삼국유사』 권2, 기이2, 文武王法敏), ② “聖人哀戚, 沾悲淚於龍衣, 冢宰憂傷, 流輕汗於蟬冕”(『삼국유사』 권3, 흥법3, 原宗興法 厭騰滅身)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70) 『삼국유사』 권5, 신주6, 혜통항룡조, “或云, 通俗名尊勝角干, 角干乃新羅之宰相峻級, 未聞通歷仕之迹.” 이 글은 일연의 자술이 분명하다.

71) ① 진평왕대(598-608)~신문왕대(681-693)설(서태수, 『죽지랑의 생존연대고』, 『국어국문학지』 10, 문창어문학회, 1971, 106~107쪽), ② 609년(진평왕 31)경설(權惠

위상을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 『삼국사기』에 보이는 죽지랑의 약력

시기	직책	내용	전거
㉠ 649.8	장군	대백제전 도살성 전투 참전	권5, 진덕여왕 3년 8월
㉡ 651.2	중시	執事部の 초대 中侍(~654.12)	권5, 진덕왕 5년 춘2월
㉢ 661.4.19	장군	신라군 구원 출전	권5, 태종 무열왕 8년 하4월
㉣ 661.7.17	貴幢 總管	백제 부흥군 토벌	권6, 문무왕 1년 추7월
㉤ 668.6.21	京停 總管	伊濱, 고구려 원정군 참여	권6, 문무왕 8년 하6월
㉥ 670.7	-	백제 부흥군 토벌	권6, 문무왕 10년 추7월
㉦ 671.6	-	石城에서 唐군 격파	권7, 문무왕 11년 하6월

죽지랑은 649년 처음 史書에 등장하며, 671년 6월 이후 활동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삼국사기』에 진덕왕 3년(649) 8월에 장군 殷相이 거느린 백제군이 石吐城 등 일곱 성을 쳐서 함락시키자, 왕이 대장군 김유신과 장군 陳春(陳純)·竹旨·天存(?~679) 등에게 명하여 나가서 이를 막게 했다(<표 6>-㉠). 동일 기사에 대한 다른 기록에는 이름순서가 장군 陳春·天存·竹旨⁷²⁾, 竹旨·陳春·天存⁷³⁾ 등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위의 순서가 장군 내의 서열순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때 상장군 김유신(595~673)의 나이 55세였는데, 장군 세 사람은 그보다 손아래라고 생각된다. 이 밖에 함께 참전한 인물로는 金純·眞欽·天品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생몰년을 알 수 있는 인물은 하나도 없다. 다만 金陳純이 675년 11월, 재상에서 물러날 때, 문무왕이 안석과 지팡이를 그에게 주었다. 김유신이 70세에 靑장을 받았으므로⁷⁴⁾, 당시 김진순의 나이는 60대말 70대초 정도였을 것이다. 대략 605년

永, 「圓測의 入唐과 歸國問題」, 335~337쪽), ③ 616-620년경설(황병익, 『三國遺事』 竹旨郎條와 「慕竹旨郎歌」의 의미 고찰, 2007, 191쪽) 등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72)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9년 8월조.

73) 『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中.

74)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5년 동10월, “宰相陳純乞致仕, 不允, 賜几杖.” 신라시대에는 70세로 致仕하는 대신들에게 靑장을 내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전후에 출생했을 것으로 보이며, 죽지 또한 그와 비슷한 연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연은 신문왕대까지 총재로서 활동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신라 중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 신라는 651년 기존의 稟主를 執事部로 고쳤는데, 이때 죽지랑은 집사부의 초대 中侍가 되어 654년 12월까지 약 4년간 활동하였다. 초대 중시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의 집안이 무열왕계와 매우 밀착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중시로서 機密事務를 관장하였다는 사실은 무열왕의 즉위 및 정권 장악 과정에서 그의 역할을 짐작케 한다.⁷⁵⁾ 그의 아버지 金述宗은 關川·林宗·虎林(武林)·廉長·庾信과 함께 신라의 四靈地의 하나인 남산 弓知巖에서 열린 화백회의에 참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⁷⁶⁾ 따라서 그는 신라 내 유력한 진골 가문 출신이었으며, 삼국통일 과정과 중고기에서 중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모죽지랑가의 내용 분석에서 화랑의 몰락, 또는 죽지랑의 몰락이라는 견해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그러한 인식은 죽지랑조의 각 내용을 분석하지 않고, 효소왕대라는 선입견에 근거한 것이라고 본다.

죽지랑의 약력을 보면, 4대에 걸친 총재가 아니고 신문왕대를 제외한 3대뿐임을 알 수 있다. 죽지랑이 신문왕대까지 재상을 지냈다는 일연의 기록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일연은 모량리 탄압사건을 효소왕대라고 확신한 나머지 죽지랑이 신문왕대까지 재상을 지냈다는 무리한 추측을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3) 출생설화의 작성 시기

처음으로 金庾信이 664년(70세)에 이를 받았다(『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4년(664), “春正月金庾信, 請老不允, 賜几杖.”).

75) 죽지의 집사부 중시 임명을 볼 때, 그의 집안이 김춘추, 김유신의 연합 세력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한 세력이 아니었나 생각된다(이종욱, 『三國遺事 竹旨郎條에 대한 一考察』, 1986, 212쪽).

76) 『삼국유사』 권1, 기이1, 眞德王조.

(2)-①의 내용은 일연이 구전자료를 정리·기록한 문헌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설화의 참고자료의 작성 시기를 유추해 볼 때, ‘朔州都督使’라는 표현을 주목할 수 있다. 춘천 일대로 비정되는 삭주의 전신은 우수주였다. 우수주의 연혁을 살펴보면, 牛首州(637년, 선덕여왕 6)-首若州(673년, 문무왕 13)-朔州(757년, 경덕왕 16)-春州(940년)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고자료가 작성된 시점은 경덕왕 이후라고 생각된다. 죽지랑조의 첫 번째 이야기(모랑리 탄압설화)에서 추화군이 보인다. 법흥왕 때 처음으로 推火郡이라고 불렸고, 이후 757년(경덕왕 16) 密城郡으로 고친 다음 密州-밀성-밀양으로 바뀌며, 다시 추화군으로 불린 적이 없다. 삭주는 변경된 이름을 칭하고, 추화군은 예전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예전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있어도 없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두 자료는 별개의 자료임을 알 수 있으며, 삭주의 지명 변천의 연대를 믿는다면, 출생담은 경덕왕 이후 고려 태조 이전에 작성된 문건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한편 ‘도독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州의 장관 명칭은 軍主(505년, 지증왕6)-摠管(661년, 문무왕1)-都督(785년, 원성왕1)으로 바뀌었다.⁷⁷⁾ 도독이라는 표현은 원성왕대부터 불려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도독’의 사용례가 있어⁷⁸⁾ 작성 시기를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죽지랑의 출생년이 진평왕대로서 牛首州(삭주의 전신)가 설치되기 이전이므로 이때 그의 부친 김술중이 삭주도독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 오류를 지적하여 삭주도독이 아니라 556년(진흥왕 17)에 설치된 比列州의 軍主였다는 견해도 있다.⁷⁹⁾ 삭주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김술중

77) 『삼국사기』 권40, 잡지9, 외관, “都督九人, 智證王六年, 以異斯夫爲悉直州軍主, 文武王元年, 改爲揚管, 元聖王元年稱都督, 位自級滄至伊浪爲之.”

78) 신형식, 「신라군주고」, 『백산학보』 19, 1975 참조. ① 『삼국사기』 권47, 열전7, 奚論, “建福三十五年(618 ; 필자주)戊寅, 王命奚論, 爲金山幢主, 與漢山州都督邊品, 興師襲毘岑城取之.” ②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642) 8월, “是月百濟將軍允忠, 領兵攻拔大耶城, 都督伊浪品釋, 舍知竹竹, 龍石等死之.” ③ 『삼국사기』 권6, 문무왕 4년(664) 춘1월, “以阿浪軍官爲漢山州都督” ④ 『삼국사기』 권46, 열전6, 金大問 “聖德王三年(704 ; 필자주)爲漢山州都督.” ⑤ 『삼국사기』 권8, 성덕왕 17년(718), “築漢山州都督管內諸城.”

79) 이종욱, 「三國遺事 竹旨郎條에 대한 一考察」, 『韓國傳統文化研究』 2, 1986, 209~

은 지금의 강원도 춘천 방면의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朔州都督’이라고 써도 이해되는데, 굳이 ‘朔州都督使’라고 한 기록도 흥미롭다. ‘都督使’라는 용어는 唐의 ‘節度使’를 연상케 한다. 신라의 경우, 924년 경명왕 때 王逢規가 泉州節度使를 칭했다는 기록이 유일하다.⁸⁰⁾ 절도사는 節度大使라고도 하였는데, 대사와 관련하여 ‘淸海鎮大使’가 주목된다.⁸¹⁾ 鎮大使는 당시 당에서 일반적으로 불리던 직호이며, 『입당구법순례행기』에도 나오고 있다.⁸²⁾ 청해진대사 장보고는 신무왕으로부터 ‘感義軍使’라는 직함을 얻고, 문성왕 때 ‘鎮海將軍’이 되었다.⁸³⁾ 淸海鎮大使, 感義軍使, 鎮海將軍의 사례처럼 ‘都督使’라는 용어는 흥덕왕 이후 점차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朔州’와 ‘都督使’를 나누어 살펴볼 것을 종합해 보면, (2)-①은 신라 하대 이후 작성된 것이라고 보고 싶다.

4. 모죽지랑가

죽지랑조의 마지막 내용은 모죽지랑가이다. 그 내용은 앞의 두 내용보다 간략하며, 체제는 “初得烏谷慕郎而作歌”로 시작하여 “去隱春皆理米…”의 가사를 적고 있다.

210쪽. 한편 황패강은 김술중의 삭주도독의 부임 시기를 진덕여왕대로 보고 있다(앞의 논문, 1991, 69~70쪽). 선덕왕 초년 출생설도 있다(尹榮玉, 앞의 논문, 1979, 73~74쪽). 죽지랑이 선덕왕, 진덕여왕 때 태어났다는 것은 사실로 믿기 어렵다.

- 80)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景明王, “泉州節度使王逢規, 亦遣使貢方物.”
 81) 『삼국사기』 권10, 興德王 3년(828), “夏四月淸海大使弓福, 姓張氏<一名保臯>.”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희강왕 2년(837) 하5월, “五月, 祐徵懼禍, 及與妻子, 奔黃山津, 口乘舟往, 依於淸海鎮大使弓福.”
 82) 圓仁, 『입당구법순례행기』 권1, 당 문종 開成 3년(838) 7월, “九日巳時, 海陵鎮大使劉勉, 來慰問使, 亦贈酒餅, 兼設音聲.”
 83)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신무왕 1년(839) 윤1월, “封淸海鎮大使弓福, 爲感義軍使, 食實封二千戶.” 『삼국사기』 권11, 문성왕 1년(839) 추8월, “八月大赦教曰, 淸海鎮大使弓福, 嘗以兵助神考, 滅先朝之巨賊, 其功烈可忘耶, 乃拜爲鎮海將軍, 兼賜章服.” 장보고가 활약하던 당시 在唐 신라교민사회의 실력자들을 大使라고 한 기록도 있다.

(3)-① 그런데(처음에, 이전에) 득오곡이 낭을 그리워하여 노래를 지었다.

(3)-② 간 봄 그리매 모든 것이 시름이로다. 아담하신 모습에 주름이 지시니, 눈 돌이킬 사이에 만나옵기 지(作)오리. 낭이여 그리운 마음의 가을 길, 쪽구렁에 잘 밤은 있으리.⁸⁴⁾

(3)-①에서 모죽지랑가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를 서술한 다음, (3)-②에서 그 가사를 적고 있다. 우선 모죽지랑가가 효소왕대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기이편에 넣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죽지랑조 처음에 넣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마지막에 넣음으로써 대미를 장식한다는 점을 일연은 의도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품은 의문이다. 이러한 추론을 논증하기 위해 모죽지랑가의 제작 시기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두와 향찰로 쓰여 있어 향가에 문외한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다만 이 향가에 대한 국문학자의 견해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국문학계는 모죽지랑가의 창작 시기와 창작 배경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작 시기의 규명은 국문학계에서도 주요 논제가 되어 왔는데, 그 바탕에는 모죽지랑가의 해독에 두고 있다. 현재 국문학자들의 다양한 해독문이 연구되어 있는데, 모죽지랑가는 죽지랑이 생존하던 시기에 지은 ‘思慕詩’인가, 또는 죽은 이후에 지은 ‘追慕詩’인가라는 견해로 대별되고 있다. 사모시라고 보는 경우에도, 진평왕대⁸⁵⁾, 선덕여왕대⁸⁶⁾, 진덕왕⁸⁷⁾, 신문왕대,⁸⁸⁾ 효소왕⁸⁹⁾, 득오가 부역할 때⁹⁰⁾ 등 다양하다.

84) 이병도, 『역주 삼국유사』, 250쪽 참조. 이와 함께 이민수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21쪽의 해석을 볼 때 이들은 사모시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5) 박재민, 「〈모죽지랑가〉의 사건 발생 시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0, 2005, 135~153쪽.

86) 서태수, 「죽지랑의 생존연대고」, 『국어국문학지』 10, 문창어문학회, 1971, 102쪽.

87) 辛秀植, 「모죽지랑가 창작연대연구」 『국어국문학』 23, 1961, 131~133쪽.

88) 죽지랑의 노년기(신문왕대)설(김장환, 「모죽지랑가 창작 연대고」, 『어문논집』 8권, 민족어문학회, 1964, 32쪽 ; 趙潤濟, 『國文學史』, 동국문화사, 1956, 28쪽.

89) 申載弘, 「모죽지랑가의 시대 배경과 현실 인식」, 『국어교육』 권96, 한국어교육학회, 1998.

90) 양희철, 「모죽지랑가의 해독」, 『인문과학논집』 15, 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6 ; 「모죽지랑가의 창작시기-瞥」, 『한국시가연구』 1, 한국시가학회, 1997 ; 「모죽지랑가」, 『삼국유사향가연구』, 태학사, 1997. 이도흠, 「모죽지랑가의 創作背景과

이에 대해 죽지랑의 사후 즉, 추모시로 이해하는 하는 연구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⁹¹⁾ 단순히 향가 해독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역사학 연구 못지않게 화랑, 진골과 육두품의 갈등, 중대 사회의 모순 등을 언급하며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역사학계에서는 모죽지랑가의 제작 시기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지만, 효소왕대로 보는 몇 편의 논고가 있다.⁹²⁾

모죽지랑가의 제작 시기는 국문학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되어왔다. 죽지랑의 생몰년을 알 수 없고, 모죽지랑가의 일치된 견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일연은 모죽지랑가를 어떤 시로 생각했던 것일까? 모죽지랑가의 창작 시기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추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初得烏谷慕郎而作歌”라는 기록에서 ‘初’를 주목할 수 있다.⁹³⁾ ‘初’에 대해 ‘처음에’, ‘이전에’, ‘그런데’ 등으로 해석해 왔다. ‘初’를 문장을 나누는 단순한 의미로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시간이나 순서를 의미하는 뜻으로 본다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연의 자술인지, 전재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용례를 정형화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죽지랑조의 ‘初’는 “初堤上

受容意味, 153~158쪽.

- 91) 국문학계의 모죽지랑가의 연구사 정리는 다음을 논문을 참조하였다. 楊熙喆, 「모죽지랑가의 창작 시기 一瞥」, 227~228쪽 ; 황병익, 「『三國遺事』 竹旨郎條와 「慕竹旨郎歌」의 의미 고찰」, 188쪽 ; 서정목, 「모죽지랑가의 시대적 배경 재론」, 『韓國古代史探究』 1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3.
- 92) 이종욱, 「三國遺事 竹旨郎條에 대한 一考察」, 『韓國傳統文化研究』 2, 1986, 210쪽 및 이종학, 「죽지랑과 부산성에 관한 일고찰」, 『경주연구』, 경주발전연구원, 1994, 121쪽.
- 93) ‘初’라는 표현에 주목한 연구는 윤영옥, 김승찬, 박노준 등 국문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었다(이도흙, 「모죽지랑가의 創作背景과 受容意味」, 『한국시가연구』 3, 한국시가학회, 1998, 135~137쪽 참조). 이 밖에 楊熙喆, 「모죽지랑가의 창작 시기 一瞥」, 『한국시가연구』 창간호, 한국시가학회, 1997, 229~232쪽 : 『향가 꼼꼼히 읽기-모죽지랑가의 해석과 창작시기』, 태학사, 2000 ; 박재민, 「모죽지랑가의 사건 발생 시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0, 2005에서도 주목했던 논제였다. 양희철은 ‘初’는 ‘이전에’라는 의미만을 알 수 있을 뿐, 더 이상 창작 시기를 좁힐 수 없는 정보의 막연성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모죽지랑가의 창작 시기 一瞥」, 1997, 232쪽). 이와 달리 ‘그런데’ 정도의, 이야기를 전환시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논고도 있다(이연숙, 「모죽지랑가고」, 『한국문학논총』 13, 한국문학회, 1992, 13~17쪽).

之發去也, 初神文王發疽背”⁹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단락을 나눌 때 일연이 썼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표현을 가지고 모죽지랑가의 창작 시기를 추정하는 방법은 무리가 있다.

둘째,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추론은 죽지랑조의 서술 구조(순서)를 주목하는 방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연은 모랑리 탄압설화를 효소왕대로 생각했으며, 죽지랑의 탄생설화는 모랑리 탄압설화보다 앞선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모죽지랑가의 창작 시기도 탄압설화보다 앞선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 모랑리 탄압과 모죽지랑가의 창작 시기가 모두 효소왕대라고 인식했다면, 탄압설화와 연결하여 함께 서술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효소왕대의 기이편에 모죽지랑가를 제일 앞에 편집하지 않고, 효소왕대 모랑리의 탄압 기사를 넣은 것은 모죽지랑가가 효소왕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죽지랑이 신문왕~효소왕대에 죽은 것으로 이해했던 일연은 모죽지랑가가 효소왕대가 아닌 그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셋째, 慕竹旨郎歌와 경덕왕 때 忠談이 지었다고 전하는 讚耆婆郎歌에서 ‘慕’와 ‘讚’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찬기파랑가는 충담이 화랑 기파랑을 추모한 시라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국문학계는 기파랑의 실체에 대해서 화랑 기파랑이 아닌, 불교 경전상의 ‘耆婆’, 승려 ‘表訓’ 등 그 견해가 다양하여 찬기파랑가를 화랑을 노래한 향가라고 규정하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다. 앞으로 치밀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제이지만,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하고자 한다. 두 향가가 화랑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없다 하더라도 ‘慕’와 ‘讚’의 의미 분석은 가능하리라 본다. ‘讚’이란 표현 속에 추모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 ‘慕’는 사모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慕’에 대한 일연의 표현상 특징을 찾아보는 방법도 좋을 듯싶다. 『삼국유사』에서는 ‘慕’, ‘思慕’, ‘欽慕’ 등이 있으며, 비슷한 의미를 가진 ‘抱懷’, ‘眷戀’ 등이 보인다.⁹⁵⁾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이들 자료 중 일연의 자술인가를 확

94) 『삼국유사』 권1, 기이1, 奈勿王金堤上조 및 해통항룡조 참조.

95) 『삼국유사』 권1, 기이1, 奈勿王金堤上, “初堤上之發去也, … 久後夫人, 不勝其慕, 率三娘子, 上瑪述嶺, 望倭國, 痛哭而終, 仍爲瑪述神母, 今祠堂存焉.”(대상이 故人

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이들 용어들 간에 生者에 대한 연모와 故人에 대한 추모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다음으로 대부분의 국문학자들이 시도해 왔던 향가의 해독을 통해 이해하는 방법이다. 특히 마지막 구절인 “郎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낭이여! 그리운 마음이 가는 길에 쭉 우거진 거리)⁹⁶⁾(마을, 구렁, 굴형, 굴형)에 잘 밤 있으리)”라는 구절에서 ‘쭉 우거진(蓬次叱)’이란 표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용례를 볼 때, ‘쭉 우거진’이라는 관용어를 받는 명사로서 廢墟·廢家·古家·무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로서 궁핍한 생활, 환경을 의미하기도 한다.⁹⁷⁾ ‘쭉이 우거진 곳에서 잠을 잔다’는 선학들의 해석을 참고해 보면, 궁핍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 즉 득오가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사회적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득오는 죽지랑을 향한 그리움에 그의 무덤에라도 찾아갈까 하는 마

김제상

『삼국유사』 권5, 감통7, 廣德嚴莊, “其婦乃芬皇寺之婢, 盖十九應身之一, (廣)德嘗有歌云, 月下伊底亦, 西方念丁去賜里遣, 無量壽佛前乃, 惱叱古音<鄉言云報言也>多可支白遣賜立,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兩手集刀花乎白良, 願往生願往生, 慕人有如白遣賜立, 阿邪此身遣也置遣, 四十八願成遣賜去.”[대상이 (生者) 무량수불]

『삼국유사』 권2, 기이2, 駕洛國記, “此中更有戲樂**思慕**之事 每以七月二十九日, 土人吏卒陟乘帖, 設帷幕酒食…”(대상이 고인 김수로)

『삼국유사』 권5, 감통7, 金現感虎, “妻**思慕**之甚, 盡日涕泣, 忽壁角見一虎皮, 妻大笑.”(대상이 고향)

『삼국유사』 권2, 기이2, 處容郎 望海寺, “(憲康)王以美女妻之, 欲留其意, 又賜級干職,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變無人, 夜至其家, 竊與之宿.(대상이 生者 처용의 아내)

『삼국유사』 권2, 기이2, 駕洛國記, “其餘臧獲之輩 自來七八年間 未有茲子生 唯**抱懷**土之悲 皆首丘而沒 所舍窟園其無人.”(대상이 고향)

『삼국유사』 권3, 답상4, 栢栗寺, “忽有一僧, 容儀端正, 手携琴笛, 來慰曰, 憶桑梓乎, 予不覺跪于前曰, **眷戀**君親, 何論其極.”(대상이 生者 君親)

『삼국유사』 권4, 의해5, 『삼국유사』 권4, 의해5, 歸竺諸師, “廣函求法高僧傳云, 釋阿離那<一作耶>跋摩<一作□>, 新羅人也. 初希正教, 早入中華, **思覲**聖蹤, 勇銳彌壇, 以貞觀年中, 離長安到五天.”[대상이 (生者) 부처]

96) 이도흠, 「모죽지랑가의 創作背景과 受容意味」, 『한국시가연구』 3, 1998, 133쪽.

97) 황병익, 「『三國遺事』 竹旨郎條와 「慕竹旨郎歌」의 의미 고찰」, 『어문연구』 35-3, 2007, 206쪽 참조.

음을 노래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혹은 죽어서라도 죽지랑과 함께 있고 싶다는 심정을 읊은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해석을 따르더라도 죽지랑은 이미 고인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노래를 지을 때는 이미 죽지랑이 죽은 이후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싶다. 그러나 일연은 사모시로 이해했던 것 같다.

일연의 ‘慕’에 대한 해석을 연구자들은 思慕와 追慕로 구분해 왔다. 일연은 모죽지랑가를 기술하면서 ‘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용을 모르면서 수록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연은 죽지랑의 생몰년과 모죽지랑가의 창작 시기를 모르고 있었다. 일연은 죽지랑이 신문왕~효소왕대에 죽은 것으로 생각했고, 모죽지랑가의 창작 시기를 죽지랑이 생존해 있을 때 제작되었다고 본 것 같다. 모죽지랑가를 수록한 일연은 그 내용을 보면, 사모시인지, 추모시인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과연 일연이 모죽지랑가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원문 그대로 전재했는지 더욱 궁금할 뿐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삼국유사』 소재 효소왕대 기록 중 죽지랑조가 기이편에 편집된 이유를 밝히고, 나아가 효소왕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 규명해 보았다.

일연이 죽지랑조를 효소왕대에 해당하는 기이편에 수록한 것은 죽지랑, 득오, 익선 등의 등장인물과 함께 모랑리의 탄압 사건을 효소왕대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죽지랑의 출생담과 모죽지랑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일연은 효소왕대가 아님을 분명히 했고, 모랑리 탄압설화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죽지랑의 출생담과 모죽지랑가 등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편집한 것이다.

모랑리의 탄압 사건이 효소왕대에 발생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보완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첫째, 일연이 인용한 자료는 구술자료가 아닌 문헌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구술자료라면 고려시대에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인데, 본 자료는 신라시대의 용어를 쓰고 있음을 볼 때 구전자료가 아닌 문헌자료라고 생각된다.

모량리의 탄압설화는 부산성이란 표현에서 문무왕 이후에 작성, 고려시대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하대에 작성된 기록이고, 작성자는 유학 및 화랑(仙道)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추론해 보았다. 죽지랑의 출생연기설화에서 삭주의 지명 변천의 연대를 믿는다면, 출생담은 경덕왕 이후 고려 태조 이전에 작성된 문건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또한 ‘도독사’를 라는 표현에서 흥덕왕 이후 즉 신라 하대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고 싶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죽지랑의 출생연기설화는 신라 하대 흥덕왕 이후 태조 이전에 전승 설화를 문자로 작성된 자료라고 보여진다. 모죽지랑가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향가의 문외한으로서 언급하기 곤란하다. 이 향가 역시 『삼국유사』소재 향가와 비교하여 일연이 구전 전승된 향가를 듣고 기록한 것인지, 정리된 향가를 그대로 수록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함을 시인한다. 일연은 죽지랑이 신문왕대까지 재상을 지내고, 효소왕대에 죽은 것으로 여긴 듯하며, 득오곡의 모죽지랑가는 그의 생전에 지은 노래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모죽지랑가에서 쑥이 우거진 마을을 무덤의 시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죽지랑 사망 이후에 지은 노래라고 생각된다.

둘째, 죽지랑조는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상 배열을 달리 한 것은 일연의 편찬의도를 보여주며, 세 개의 기록이 서로 다른 문건을 참고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죽지랑조는 기이편에 수록된 내용인데, 죽지의 출생보다 익선의 사건을 앞에 놓은 것은 일연이 기이편이라는 편목을 염두해 둔 것으로서 익선의 사건을 효소왕대의 사실로서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죽지랑가 찬술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익선의 사건을 앞에 놓었다고 생각된다. 일연은 첫째 이야기 모량리의 탄압설화를 효소왕대라고 생각하고 출생보다 앞서 수록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일연의 자술을 분석하면서 죽지랑조의 이해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었다. 일연은 자료를 전제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특히 자술 부분은 등장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일연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제 부분 역시 언제 작성되었는지, 그 시기를 추적해 봄으로써 본 자료의 역사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가장 많은 양을 할애했던 부분이 모량리 탄압 사건의 기록이었다.

모량리의 탄압설화에서 원측 기사는 원자료의 내용이 아니고, 일연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 것이다. 죽지의 출생설화에서 진덕왕 이후 신문왕대까지 재상을 지냈다는 기사 역시 일연의 자술이며, 모죽지랑가의 도입 부분 역시 그의 자술 내용이다. 원측은 『삼국유사』에 立傳되지 않은 승려이다. 그렇다고 일연이 원측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일연은 중국의 『양고승전』, 『속고승전』, 『송고승전』 등 여러 승전을 참고했던 만큼 그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원측이 모량리 출신이라는 점은 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가 모량리 출신이기 때문에 승적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재고를 요하는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죽지의 활동에서 신문왕대까지 재상을 지냈다는 기록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삼국사기』에는 671년 기록 이후는 전하지 않는다. 그와 함께 활동했던 김진순을 볼 때, 신문왕대까지 재상을 지냈다는 기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모죽지랑가의 도입부분의 첫 단어 ‘初’는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했던 주제 중 하나였다. 이를 통해 일연의 상투적인 표현을 정리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넷째, 일연이 참고한 자료들의 작성 시기 및 작성자를 추적하면서 모량리 탄압 사건, 죽지랑 출생설화 등은 신라 하대에 문자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량리의 탄압설화 속에는 진평왕대 이후 효소왕대까지의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들이 부회되어 전승되었고, 그것이 신라 하대에 수집 정리된 것으로 이해된다. 후대에 작성되었다고 그 기록 자체를 의심할 수 없으나,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모량리 탄압 사건은 신라 중대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효소왕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모량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신라 중대 사회에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중고기에 번성한 모량부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듯싶다.

끝으로 자료의 분석이 작위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字句 해석에 치우친 점은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으리라 생각된다. 향후 백률사조, 혜통향룡조, 진신수공조에 분석을 통해 보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부식, 『삼국사기』.
 일연, 『삼국유사』.
 이병도, 『역주 삼국유사』.
 이민수 역주, 『삼국유사』.
 리상호, 『역주 삼국유사』.
 이행 외, 『신증동국여지승람』.
 허흥식 편, 『한국금석전문』, 아세아문화사, 1984.

權惠永, 「圓測의 入唐과 歸國問題」,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1992.
 金在庚, 「新羅의 密敎 受容과 그 性格」, 『대구사학』 14, 1978.
 金哲垞, 「新羅貴族勢力의 基盤」, 『人文科學』 7, 1962 :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1975.
 김두진, 「『삼국유사』의 사료적 가치」, 『구비문학연구』 13, 2001 :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 일조각, 2014.
 김상현,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김승찬, 「죽지랑가 신고찰」, 『국어국문학』 13·14집, 부산대학교, 1977 : 「죽지설화와 모죽지랑가에 대한 신고찰」, 『새결 박태권선생환갑기념논총』, 제일문화사, 1984.
 김영태, 「佛國寺의 華嚴法師 圓測에 대하여」, 『韓國佛敎學』 19집, 1994 : 『한국 불교사 정론』, 불지사, 1997.
 金完鎭, 「慕竹旨郎歌 解讀의 考究」, 『진단학보』 48, 진단학회, 1979 : 『항해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김장환, 「모죽지랑가 창작 연대고」, 『어문논집』 8, 민족어문학회, 1964.
 김재경, 「신라의 밀교 수용과 그 성격」, 『대구사학』 14, 1978.
 김재홍, 「신라 왕경의 개발 과정과 발전 단계」, 『한국사학보』 52, 2013.
 김종우, 「모죽지랑가의 성격고」, 『한국문학논총』 1, 1978.
 김창석, 「창고제의 성립과 운영」,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2004.
 김태식, 「『三國遺事』 竹旨郎條 탈구축을 통한 新羅 花郎과 그 花主」, 『忠北史學』 21, 2008.
 남무희, 「원축의 생애복원과 그의 정치적 입장」, 『한국고대사연구』 28, 2002.
 李基東, 「新羅 金入宅考」, 『진단학보』 45, 진단학회, 1978 : 『신라 골품제 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李妍淑, 「慕竹旨郎歌考」, 『한국문학논총』 13, 한국문학회, 1992.
 박노준, 「慕竹旨郎歌考」, 『연민 이가원 선생 육질송수 기념 논총』, 범학도서, 1977.
 박재민, 「모죽지랑가의 10구체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 「<모죽지랑가>의 사건 발생 시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0, 2005.
 朴海鉉, 「新羅 聖德王代정치세력의 추이」, 『韓國古代史研究』 31, 韓國古代史學會, 2003 : 『신

- 라중대정치사연구, 국학자료원, 2003.
- 三品彰英, 『新羅花郎の研究』, 1943 : 『三品彰英論文集』 6, 平凡社, 1974.
- 徐在克, 「新羅鄉歌의 語彙研究: 慶尙道 方言의 觀點에서」, 『韓國學研究叢書』 3, 啓明大學 韓國學研究所, 1975.
- 徐禎穆, 「모죽지랑가의 시대적 배경 재론-효소왕의 출생 시기에 대한 새로운 추론-」, 『韓國古代史探究』 1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3 : 「孝昭王의 출생 시기 관련 기록 검토」, 『진단학보』 122, 2014.
- 서태수, 「죽지랑의 생존연대고-모죽지랑가 창작연대 고구를 위한」, 『국어국문학지』 10, 문창어문학회, 1971.
- 신동훈, 「모죽지랑가와 죽지랑이야기의 재해석」, 『관악어문연구』 15, 1990.
- 신수식, 「慕竹旨郎歌의 創作年代研究」, 『국어국문학』 23, 국어국문학회, 1961.
- 신영훈, 「신라통일기의 옥사 건축」, 『미술사학연구』 162·163, 1984.
- 신재홍, 「모죽지랑가의 시대 배경과 현실 인식」, 『국어교육』 96, 한국어교육학회, 1998.
- 辛鐘遠, 「新羅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87 : 「斷石山神仙寺 造像銘記에 보이는 彌勒信仰 集團에 대하여-신라 中古期の 王妃族 岑啄部-」, 『歷史學報』 142, 1994 : 「三國遺事 孝昭王代 竹旨郎條 譯註」, 『한국사상사학』 6-文山金三龍博士古稀紀念 특집호, 1994 ; 『삼국유사 새로 읽기(1)』, 일지사, 2004.
- 申衡錫, 「新羅 慈悲王代 坊里名의 設定과 그 意味」, 『慶北史學』 23, 경북사학회, 2000.
- 양주동, 『古歌研究』, 博文書館, 1942 : 『증정고가연구』, 일조각, 1965.
- 楊熙喆, 「慕竹旨郎歌의 創作時期一瞥」, 『한국시가연구』 창간호, 한국시가학회, 1997 : 『항가 꼼꼼히 읽기 - 모죽지랑가의 해석과 창작시기』, 태학사, 2000.
- 俞昌均, 「항가의 해독을 위한 시론-其三, 慕竹旨郎歌의 ‘好支-’를 중심으로」, 『배달말』 16, 배달말학회, 1991 : 『항가비해』, 형설출판사, 1994.
- 尹榮玉, 「모죽지랑가 재고」, 『한민족어문학』 6, 1979 ; 「花郎의 詩歌」,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0, 신라문화제학회, 1991.
- 이기봉, 「신라 왕경의 범위와 구역에 대한 지리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 이도흠, 「모죽지랑가의 創作背景과 受容意味」, 『한국시가연구』 3, 한국시가학회, 1998.
- 李鍾旭, 「三國遺事 竹旨郎條에 대한 一考察」, 『韓國傳統文化研究』 2, 효성여대, 1986.
- 李鍾學, 「죽지랑(竹旨郎)과 부산성(富山城)에 관한 一考察」, 『경주연구』, 경주발전연구원, 1994.
- 이탁, 『국어학논고』, 정음사, 1958.
- 李弘植, 「三國遺事 竹旨郎條 雜考」, 『黃義敦先生古稀紀念 史學論叢』, 東國史學會, 1959 :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 張珍昊 著, 『新羅 鄉歌의 研究』, 형설출판사, 1993.
- 전덕재, 「신라 里坊制의 시행과 그 성격」,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6, 2005.
- 정구복, 「우리나라 국호고」, 『藏書閣』 29, 2013.
- 하일식, 「김대성과 죽지랑의 이야기를 따라」, 『내일을 여는 역사』 27, 2007.

- 韓國語文學會, 『新羅時代の 言語와 文學』, 螢雪出版社, 1974.
- 洪起三, 「孝昭王代 竹旨郎 考」, 『불교학보』 30, 1993.
- 홍영의, 「고려전기 개경의 五部坊里 구획과 영역」, 『역사와 현실』 38, 한국역사연구회, 2000.
- 黃柄翊, 「『三國遺事』 竹旨郎條와 「慕竹旨郎歌」의 의미 고찰」, 『어문연구』 35-3, 2007.
- 황인호, 「신라 王京의 計劃都市化 과정 연구」, 『新羅史學報』 17, 신라사학회, 2009.
- 黃溟江·朴魯埜·林基中, 『鄉歌麗謠研究』, 二又出版社, 1985.
- 황폐강, 「모죽지랑가 연구」, 『어문연구』 21, 1991.

국문초록

본 논문은 『삼국유사』 소재 효소왕대 기록 중 죽지랑조가 기이편에 편집된 이유를 밝히고, 나아가 효소왕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일연이 죽지랑조를 효소왕대에 해당하는 기이편에 수록한 것은 죽지랑, 득오, 익선 등의 등장인물과 함께 모량리의 탄압 사건을 효소왕대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죽지랑의 출생담과 모죽지랑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일연은 효소왕대가 아님을 분명히 했고, 첫 번째 이야기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죽지랑 관련 다른 자료들을 수집해 편집한 것이다. 본고에서 살피지 못했지만, 죽지랑조 보다는 탐상편의 백률사조, 감통편의 眞身受供가 기이편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과연 모량리의 탄압 사건이 효소왕대에 발생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일연이 전제했던 부분과 자신의 생각을 쓴 자술 부분으로 나누어 참고 문헌의 작성시기와 작성자를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모량리 탄압설화, 죽지랑 출생설화 등은 신라 하대에 문자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량리의 탄압설화 속에는 진평왕대 이후 효소왕대까지의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들이 부회되어 전승되었고, 그것이 신라 하대에 수집 정리된 것으로 이해된다. 후대에 작성되었다고 그 기록 자체를 의심할 수 없으나,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모량리의 탄압 사건을 효소왕대에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강력한 왕권을 견지한 신라 중대에서나 가능했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죽지랑의 탄생 설화 역시 경덕왕 이후, 흥덕왕대를 전후에서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모죽지랑가는 죽지랑 사후 작성된 것이 아닐까 추론해 보았다.

주제어 : 竹旨郎, 得鳥, 益宣, 孝昭王, 眞平王, 富山城, 牟梁里, 圓測, 述宗, 竹旨嶺, 慕竹旨郎歌, 一然

Abstract

Samgukyusa record review during king Hyoso of Silla

- Focusing on the quaint side Jukjirang joe -

Yeo, SungGu

This study is to uncover the reasons for writing the story of Jukjirang into the quaint side(紀異篇) Samgukyusa. Ilyeon knew that king Hyoso when the events of oppression Moryangri occurred. Jukjirang birth and Mojukjirangga is a not a king Hyoso happened when Ilyeon was clearly aware of. Ilyeon is edited Jukjirang to collect other relevant data in the sense that complements the first story.

King Hyoso did indeed suppress the Moryangri? To solve this problem, try the analysis of the data. I was separated directly writings and quoted article. So I was tracking the creation time and author of reference. As a result, Moryangri repression Tales and Birth tales of Jukjirang that I found written in the late Silla.

The story of oppression Moryangri would imply a variety of events to king Hyoso from Jinpyeongwang. And it will be organized to collect the late of Silla. We can not doubt the record itself has been created to posterity. However, there is a need to pursue a historical fact to be careful.

The repression of Moryangri can not say for sure events of king Hyoso. But I think that this had occurred in the Middle Ages of Silla the king has a strong power. Birth tales of Jukjirang looked to have been created between king Gyeongdeok from king Heungdeok. Mojukjirangga is thought to be written after the death of Jukjirang.

Key words : Jukjirang, Deukoh, king Hyoso, king Jinpyeong, Ikseon, Busansung, Moryangri, Woncheuk, Suljong, Jukjiryong, mojukjirangga, Ilyeon

투고일 : 2015. 7. 10. 심사완료일 : 2015. 8. 3. 게재확정일 : 2015. 8. 6.
--